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석사학위논문

일반청소년과 학업중단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식 비교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박 성 호

2017년 8월

# 일반청소년과 학업중단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식 비교

지도교수 박 정 환

박 성 호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7년 6월

박성호의 교육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위 원 \_\_\_\_\_ (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2017년 8월

<국문초록>

## 일반청소년과 학업중단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식 비교

박 성 호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지도교수 박 정 환

매년 5-6만 명의 청소년들이 학교를 그만두고 있으며, 2016년 교육통계연보를 보면 고등학생의 수가 2015년에 총 22,554명이었다. 청소년들에게 학업을 중단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사회와의 단절을 느끼고 낙오를 경험하며 사회적으로는 비행과 범죄 환경에 자주 노출되는 등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본 연구는 일반 청소년과 학업중단 청소년이 서로 다른 환경에서 받는 스트레스와 대처방식이 서로 차이가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연구의 목적은 일반청소년과 학업중단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식을 비교해 보고, 일반청소년과 학업중단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식에 차이가 있는지 밝히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 일반청소년과 학업중단 청소년의 스트레스는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 일반청소년과 학업중단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 일반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4 : 학업중단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이와 같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대상은 제주도내에 재학 중인 고1 ~ 고2 일반청소년 284명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야간학교, 검정고시학원, 청소년쉼터, 소년원 등에 있는 학업중단 청소년 95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도구는 김준호와 이동원(1996)의 스트레스 측정도구를 박민호(2009)가 청소년의 수준에 맞게 어휘 및 문항들을 재구성 한 것으로, ‘부모관련’, ‘성적 및 학교 관련’, ‘친구 관련’, ‘외모 관련’, ‘경제적 문제 관련’의 5개 영역(26개 문항, 5점 Likert)을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Endler와 Rarker가 개발한 도구를 박용천, 김광일, Noh(2000)가 한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변안한 후, 박민호(2009)가 재구성한 것으로 ‘과업중심’, ‘정서중심’, ‘회피중심’ 3가지 영역(30개 문항, 5점 Likert)를 구성하여 사용 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료 분석은 SPSS for Windows 18,0에 의해 t검정과 Pearson 상관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연구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청소년과 학업중단 청소년의 스트레스를 분석한 결과, 부모 관련, 성적 및 학교 관련 스트레스에서 일반청소년이 학업중단 청소년보다 스트레스를 높게 받고 있었다. 둘째, 일반청소년과 학업중단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분석한 결과 일반청소년이 학업중단 청소년보다 과업중심, 정서중심 대처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였고, 학업중단 청소년은 정서중심 대처방식을 주로 사용하였다. 셋째, 일반청소년의 스트레스가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일반청소년의 전체 스트레스는 정서중심과 과업중심 대처방식에 영향을 미쳤다. 하위요인 별로는 부모 관련, 성적 및 학교 관련, 외모 관련 스트레스가 정서중심 대처방식에 영향을 미쳤고, 과업중심 대처방식에는 외모관련 스트레스가 부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넷째,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전체 스트레스는 정서중심 대처방식에 영향을 미쳤다. 하위요인 별로 성적 및 학교 스트레스가 정서중심 대처방식에 영향을 미쳤고, 회피중심 대처방식에서 성적 및 학교 관련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쳤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서 일반청소년과 학업중단 청소년 모두 다양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며, 대처방식 또한 다르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는 환경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피할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스트레스원인과 대처방식을 바르게 이해한다면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로부터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도록 안내, 지도가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자신의 스트레스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잘 다룰 수 있도록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에 활용될 수 있는 근거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 목 차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문제 및 가설 .....	6
II. 이론적 배경 .....	7
1. 학업중단 청소년 .....	7
2. 청소년기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 .....	12
3.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의 관계 .....	21
III. 연구방법 .....	23
1. 연구대상 .....	23
2. 연구절차 .....	24
3. 연구도구 .....	25
4. 자료처리 .....	26
IV. 연구결과 및 해석 .....	27
1. 일반청소년과 학업중단 청소년의 스트레스 차이 .....	27
2. 일반청소년과 학업중단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차이 .....	28
3.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식간의 상관관계 .....	30
4. 스트레스가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 .....	33
V. 논의 및 결론 .....	38
참고문헌 .....	42
Abstract .....	49
부    록 .....	52

## 표 목 차

표 1.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적 분석.....	24
표 2. 스트레스 측정도구 문항구성.....	25
표 3. 스트레스 대처방식 측정도구 문항구성.....	26
표 4. 일반청소년과 학업중단 청소년의 스트레스 차이.....	27
표 5. 일반청소년과 학업중단 청소년의 대처방식 차이.....	28
표 6. 전체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상관관계.....	30
표 7. 일반청소년과 학업중단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상관관계.....	31
표 8. 스트레스가 과업중심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	33
표 9. 스트레스 하위요인이 과업중심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	33
표 10. 스트레스가 정서중심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	34
표 11. 스트레스 하위요인이 정서중심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	35
표 12. 스트레스가 회피중심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	36
표 13. 스트레스 하위요인이 회피중심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	36

## 그림 목 차

그림 1. 일반청소년과 학업중단 청소년의 스트레스 차이 비교.....	28
그림 2. 일반청소년과 학업중단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비교.....	29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최근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로 찾아오는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2016년 교육통계연보의 국내 학업중단 학생현황 조사 결과에서 2015년 초등학생 14,555명, 중학생 9,961명, 고등학생 22,554명, 총 47,070명의 학생들이 정규 교육 과정을 끝까지 이수하지 못하고 학교를 떠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00년 이후부터 연간 통계량으로 그 추이를 살펴보면, 중학교의 경우, 2000년 1.0%, 2005년 1.3%, 2010년 1.0%, 2013년 0.8%, 2014년 0.7%, 2015년 0.6%의 학업중단율을 보이고 있으며, 고등학교의 경우 2000년 2.5%, 2005년 1.3%, 2010년 2.0% 2013년 1.6%, 2014년 1.4%, 2015년 1.3%의 학업중단율을 보이고 있다(교육통계서비스, 2016). 이처럼 학업중단 청소년이 5년간 30만 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전국뿐만 아니라 제주도 또한 2014년 584명, 2015년에는 483명에 이른다.

청소년들에게 있어 학교가 가지는 중요성을 생각해보면 청소년들이 학업을 중단하는 것은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학교를 다니는 것 이외의 대안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우리나라 현실을 감안할 때 학업중단은 청소년 개인의 사회적 자립 및 성장을 저해하고 발달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의 습득이나 기회의 상실 등을 뜻한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는데 있어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양국선, 장성숙, 2001). 더욱 걱정되는 것은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학업을 그만두고 나서 사회와의 단절을 느끼고 낙오를 경험하고 있으며, 어디에서 무엇을 하며 지내는 지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업중단 청소년 범죄율(23.8%)이 재학생(0.7%)의 34배나 되는 것을 보면 학교를 벗어난 청소년들이 비행과 범죄의 환경에 자주 노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의 학업중단은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으로도 인적자원 손실 및 범죄율 증가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가적인 개입이 요구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학업 중단 청소년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함에도 공교육에 비해 국가 차원의 투자는 매우 낮은 수준이며, 적극적인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학교 밖 청소년 지원 대책, 2015).

청소년들의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 요인들은 크게 개인, 가정, 학교, 또래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요인들은 인과적 관계를 보이며 청소년들이 학업중단을 선택하기까지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을 둘러싼 가족, 학교, 사회 등 다양한 자원과 환경을 함께 고려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박창남, 도종수, 2003; 윤여각 외, 2002).

학업중단의 요인을 개인적인 특성으로 분석해봤을 때 개인의 부정적인 자아개념, 낮은 유능감과 자기조절 능력, 불안정한 정서 상태, 무기력함, 은둔형 외톨이 기질 등 심리·정서적 특성이 학업중단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강석영, 양은주, 이자영, 2009; 김범구, 2012). 개인의 우울, 포기 성향과 충동성이나 공격성이 학교 적응 유연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이런 성향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학업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된 바도 있다(양국선, 장성숙, 2001). 인지적 특성에는 학교 공부의 필요성과 학업 흥미 상실, 미래의 불투명성, 의미 상실 등이 관련되었고, 행동적 측면으로는 무단결석과 잦은 지각, 나태한 생활태도, 음란물 시청, 부적절한 성행동 등 과거의 일탈행동이 학업중단과 학교일탈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분석하고 있다(박영신, 김의철, 김영희, 2007). 가정 요인에서는 경제적인 문제를 비롯한 부모의 낮은 학력과 빈약한 교육지원, 부모의 직업 및 실직, 부모의 간섭 및 통제 정도, 빈번한 전근이나 이사, 바람직하지 않은 부모의 양육태도, 가정불화, 부모·자녀갈등 및 부부갈등, 결손가정(부모의 이혼, 별거, 재혼, 사망), 가출 등이 있을 때 학업중단의 위험이 높다고 보고하고 있다(표갑수, 1993).

학교는 학업중단의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다. 과거에는 가정의 경제적 요인이 학업중단의 주요 요인이었으나, 최근에는 학교생활 부적응, 학습에 대한 무관심, 학습 및 학교생활에서의 무기력, 교사와의 관계, 또래관계 등이 주원인이 되고 있다(조성연 외, 2009). 특히 청소년은 이 시기에 또래관계를 매우 중요시하는 특

성이 있으며, 일반청소년, 학업중단 청소년 모두 친구를 가장 중요한 삶의 요소로 선택하였다(김성현, 2012). 청소년기는 친구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인간관계를 맺는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게 되고, 친밀감을 경험하게 된다. 또래와의 관계욕구가 잘 충족되면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중요한 존재로 인정받는 경험을 하게 되고, 또래집단에 대한 애정과 한 구성원으로서의 공동체 의식을 느낀다(김상미, 남진열, 2011). 따라서 또래관계에서 만족을 얻지 못하면, 특히 친구가 자신을 잘 받아 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 학업중단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또한, 친구의 영향으로 반항적이고 폭력적인 집단에 속해 있기도 하고(Staff & Kreager, 2008), 자퇴한 친구가 있을 때 위기 집단이 되기도 함으로써, 친구 따라 학교를 그만두기도 한다(구자경, 2003).

이 외에도 학업중단의 원인과 관련된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스트레스의 영향에 대해서도 보고된 바가 많다.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정도가 낮은 집단과 높은 집단으로 구분하여 적응요인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스트레스가 높은 집단이 낮은 집단보다 유의미하게 적응상의 장애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순희, 1994).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도 스트레스 수준이 높은 학생이 낮은 학생보다 학교적응의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김승미, 1998; 김보정, 2003; 황미정, 2004; 홍분자, 2006;곽정중, 2009). 구체적인 스트레스 종류에 따라 살펴보면, 학업스트레스는 우울, 불안, 무기력과 같은 심리적 부적응을 초래하고 이는 학습부진, 등교거부, 비행이나 가출, 무단 장기결석, 교칙위반, 신체적 공격 행위 등을 유발하여 학교생활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박혜숙, 2008). 교사로 인한 스트레스 또한 그 정도가 클수록 학교적응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예승, 2004; 홍애숙, 2008). 가족관련 스트레스와 학교적응과의 관계는 부모에 대한 스트레스가 많은 학생일수록 학교적응과 교사적응을 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가족 문제에 대한 스트레스의 경우는 학교적응과는 별다른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길자, 2004). 이러한 각종 스트레스로 인한 청소년들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은 가치관의 혼란을 가져오고 일상생활 속에서의 부적응 및 건강한 관계형성에 어려움으로 작용하며 학업중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말하고 있다(이치열, 2009).

청소년 시기는 성인이 되기 위한 심리·사회적 발달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시

기이므로 이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스트레스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또한 청소년은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측면에서 전환기적 변화로 주위 환경의 변화와 자극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며, 스트레스 수준은 더욱 가중된다(김형선, 2002). 이러한 스트레스 경험들은 청소년에게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게 하며, 정서적 갈등과 혼란, 좌절을 경험하게 하여, 청소년의 정서적·행동적 문제들을 증가시키고 있다(김의철, 박영신, 1997). 이렇듯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경험하지만 모두 동일한 정도로 지각하지는 않는다. 같은 사건이라도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정도는 개인의 가치관이나 인지양식, 살아온 환경조건, 처한 상황과 현재의 심리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지속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이유미, 1994).

스트레스는 그 자체로 개인의 다양한 문제 행동이나 부정적 상태의 원인이 되지만,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그 스트레스를 평가하고 다루는 각 개인의 대처 방식에 따라 개인이 느끼는 스트레스도 달라지게 된다(Spence et al., 2002). 즉 동일한 스트레스도 개인이 어떻게 자신이 가진 자원을 이용하여 인지적·행동적으로 스트레스를 극복하려고 노력하는지에 따라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이 달라질 수 있어 스트레스 연구에서 대처방식의 효과를 포함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인간은 스트레스에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스트레스 경험을 재조직하여 자신의 적응적인 삶을 구성해 나가는 존재이며, 크고 작은 어려운 과제들에 직면하여 적절한 대처방식을 사용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이다(Lazarus, 1991; Lazarus & Folkman, 1984). 특히 청소년 시기에는 자신들이 직면하는 새로운 경험들을 이해하는 자신의 틀을 새롭게 구성하여, 이와 관련된 새로운 대처방식들을 발전시켜 나가기 때문에, 청소년 상담과 교육에 있어서 이들이 사용하고 있는 대처방식들을 이해하고 이에 기초하여 청소년들에게 바람직한 대처방식의 방법들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스트레스 대처란 스트레스로부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이 행하는 노력으로써, 가장 광범위하게 적용된 대처방식의 개념으로 Lazarus·Folkman(1984)의 문제중심 대처방식과 정서중심 대처방식이 있다. 그 후 Endler·Parker(1990)는 회피중심 대처방법을 추가하여 과업중심, 정서중심, 회피중심으로 구분함으로써 스트레스 대처방법 척도에 관한 신뢰도를 높였다. 문제중심과 관련이 있는 과

업증심은 문제에 대한 재구조화 또는 문제해결을 위한 최대 효과를 위한 시도로써, 상황을 통해 조정하고 배우려는 시도를 통해 이를 관리하고, 문제해결을 직접 제시하는데 사용하는 전략들을 포함한다. 정서중심적 대처는 문제나 정서지향 반응에 대한 공상과 반추를 사용하여 문제에 몰두하는 것으로써, 사건에 대한 공상, 감정적인 반응, 자기편견 등을 말한다. 회피중심적 대처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전념하거나 다른 데에 마음을 돌림으로써 당장의 문제에서 개인의 관심을 전환시키려는 행위를 말한다(박용천, 김광일, Noh, 2000).

청소년들이 사용하는 스트레스 대처방식들을 살펴보면, 고등학교 남학생의 경우 개인의 문제적 행동이나 주위의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태도로 접근, 해결하는 문제중심 대처방식으로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려는 노력을 많이 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 상대적으로 고등학교 여학생의 경우에는 스트레스로 인한 정서적 고통을 감소시키거나 회피하려는 태도로 접근, 해결하려 하는 정서중심 대처방식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려는 노력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향정, 2007; 김진영, 2009; 오현성, 2008). 일반청소년은 비행청소년에 비해 과업중심 대처유형을 더 많이 사용하고, 비행청소년이 일반청소년에 비해 정서중심과 회피중심 대처유형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보고한 바가 있으며(김형선, 2001), 비행청소년과 일반 청소년 두 집단 모두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정서중심 대처방법이나 회피중심 대처방법을 선호한다고 밝힌 연구도 있었다(박민호, 2009).

청소년이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고 대처하는 것은 학교적응과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잘 활용하는 것은 학업중단의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청소년과 학업중단 청소년 간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식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식에 대한 이해의 틀을 제공하고자 하는 데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스트레스를 건설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을 강화하는 상담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의 정신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다.

## 2. 연구문제 및 가설

본 연구는 일반청소년과 학업중단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스트레스에 미치는 영향의 상관관계를 두 집단 간에 차이를 보고 청소년들의 스트레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알아보고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로부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연구문제 1 : 일반청소년과 학업중단 청소년의 스트레스는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2 : 일반청소년과 학업중단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차이가 있는가?
- 연구문제 3 : 일반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연구문제 4 : 학업중단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이러한 연구문제를 바탕으로 설정된 연구가설은 다음과 같다.

- 가설 1. 일반청소년과 학업중단청소년의 스트레스에는(부모, 성적 및 학교, 친구, 외모, 경제적 문제)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 2. 일반청소년과 학업중단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과업중심, 정서중심, 회피중심)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 3. 일반청소년의 스트레스가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4. 학업중단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II. 이론적 배경

### 1. 학업중단 청소년

#### 1) 학업중단 청소년의 개념

학업중단이란 자의든 타의든 정규학교 교육과정을 끝내지 않고 중도에 학업을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권이중, 2010; 조성연, 이미리, 박은미, 2009). 학업중단을 나타내는 용어는 다양하여 학교학업중단, 학교중도탈락, 학교중퇴, 학교중단, 학업중퇴, 중도탈락, 학업중도탈락 등도 사용되었다. 그리고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한 용어로는 학교중도탈락자, 중도탈락청소년, 중퇴생, 중퇴청소년, 학업중퇴자, 등교 거부자, 탈학교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학교를 거부하는 아이, 학교를 떠난 아이들로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다(금명자, 2008).

학업중단에 대한 학문적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후반부터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학업중단은 비자발적 상황에 의해 학업을 중단하게 되는 것으로서, 학생이 다른 학교로 전학하는 과정 없이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학업을 중단하는 것(유성경, 1998), 비행, 질병, 가사 등의 이유로 인해 학업을 중단하게 되는 것(권현진, 1997) 등으로 정의되었다. 이로 인해 학업중단 청소년에 대하여 학교를 떠난 중도탈락자, 자퇴생, 탈학교 청소년, 학업중퇴, 학업탈락, 등교거부 청소년 등으로 지칭되었다(권이중, 2010). 그러나 이러한 용어들은 정상적인 학교로부터 벗어난 일탈이나 패배를 의미하는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고(조성연 외, 2008), 다양한 용어들로 인하여 개념 정의나 정책의 지원 대상 선정에 혼란을 가지고 올 수 있었다. 이에 2002년 당시 교육부에서는 공식적으로 ‘학업중단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함으로써 학업중단을 일탈이나 탈락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보다는 ‘현상’을 나타내는 가치중립적인 의미를 내포하게 되었으며, 학업을 지속하지 못하는 원인과 책임을 청소년의 개인적인 측면과 사회적 측면을 모두 포함하게 되었다(권이중, 2010). 이후 이경상과 박창남(2004)은 학업중단이란 청소년 자신과 가정, 학교와 사회적 요인 등으로 인하여 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자발적일뿐 아니라 비자발적으로도 학업을 중단하는 것이라고 하여 자발적인 의도까지 학업중단의 개념에 포함시킴으로써 개념의 폭을 넓혔다. 한지원(2002)은 학업중단이란, 학생이 학교에서 정해진 일정한 과정을 끝내지 못하고 학업을 그만두는 것으로써 청소년 자신과 가정, 학교, 사회 전체에 존재하는 다양한 요인들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인해 학교공부를 포기하게 되는 일종의 사회적 일탈현상으로 정의함으로써 학업중단을 보다 포괄적으로 개념화하였다.

따라서 2002년 「학업중단 청소년 종합대책」 수립 이후 용어 뜻의 혼란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현재는 청소년들이 ‘평생 교육 차원에서 학업을 잠시 중단한다’는 의미를 강조하여 중립적인 개념인 ‘학업중단 청소년’이라는 용어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다(윤여각, 박창남, 전병유, 진미석 2002). 탈락의 귀책사유를 학생 개인에게 두는 중도탈락이라는 용어에 비해, 학업중단은 전반적인 사회 시스템의 거시적 차원에서 그 원인과 책임을 규명하고자 하는데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 나아가 학업중단이라는 용어 속에는 학생의 자발적인 의지에 따라 학교 이외의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적극적인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이병환, 2007). 2003년 개정된 ‘청소년기본법’ 제 42조에서도 학업중단 청소년이라는 용어가 명시되고 있다.

학업중단 청소년 용어의 사용에 대한 다른 의견으로, ‘학교 밖 청소년’이 적합하다는 주장이 있다(금명자, 2008; 서정아, 권혜수, 정찬석, 2006). 금명자(2008)는 물리적 장소로서의 ‘학교’의 의미를 부각시켰는데, ‘학업’은 공간이나 시간과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업’으로써 청소년들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은 학교라는 공간에서 행하는 행위만을 그만두었을 뿐 검정고시나 대안시설에서 학업을 계속 진행 중이라면, 이를 학업중단으로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이는 청소년들 중 비진학 청소년, 근로 청소년, 무직청소년 등 학교 울타리 밖에도 많은 상황의 청소년들이 존재함을 근거로 이들에게 학교 정규교육이 아니더라도 국가에서 교육뿐만 아니라 취업과 진로계발을 위한 여타의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정부 부처에서는 정책 용어를 사용할 때 교육부는 ‘학업중단 청소년’으로 쓰고 있으며, 여성가족부에서는 이보다 포괄적인 개념인 ‘학교 밖 청소년’으로 사용하고 있다(전경숙, 2013).

본 연구에서는 교육부에서 사용하는 학업중단 청소년의 개념으로 연구를 진행



하였으며, 여기서 학업은 공간과 시간과는 독립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업’으로서의 의미가 아니라 ‘학교라는 장소에 가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업중단 청소년을 “청소년 자신, 가정, 학교 전체 사회에 존재하는 다변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정규교육과정 및 비정규과정의 모든 학업을 중단한 청소년”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 2)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

청소년 개인에게 초·중·고등학교 시기는 단순히 학업을 수행한다는 의미 외에 자아정체감을 형성시키는 과정이며, 원만한 대인관계를 위한 의사소통 등의 기술 습득, 집단생활 경험을 통한 사회성 등과 같은 다양한 기술을 배워나가는 시기이다.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학업을 중단하게 되면 청소년은 ‘의미 있는 자아’를 형성할 기회를 잃을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성인이 되어 불필요한 무망감과 대인관계상의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커진다(손승영, 2003). 즉, 자아개념의 부적절한 형성과 사회적 기술의 결여는 청소년의 삶의 질과 만족도를 저하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학업중단 이후 청소년이 겪는 심리적 어려움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 사회적 편견으로 인한 위축감으로 나타났다(윤철경, 류방란, 2010). 또한 대인관계에 대한 어려움과 회피적 반응, 세상이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나 통제 불능감이 있었으며, 우울이나 자살충동 등도 보고되었다(오혜영, 지승희, 박현진 2011).

그리고 청소년의 학업성취는 양질의 노동력 확보를 위해 중요한 사회적 과제이며, 개인 입장에서는 보다 나은 노동시장 진입을 위해 전제되어야 할 인적자본의 핵심요인이다(이경상, 조혜영, 2005). 따라서 학업중단은 앞으로의 진로를 탐색하고 개발해 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즉, 학업중단을 겪은 청소년은 불완전 고용과 실직에 노출될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환경적으로 열악하거나 수입이 적은 곳에서 일하거나 직업을 구하기 힘들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학업중단이 가져오는 경제적 상황은 노동숙련도의 결여와 소득의 손실 등을 포함한다(Bloom, D., 2010; McWhirter, J., McWhirter, B. T., & McWhirter, E. H., 2007). 따라서 학업 중단 청소년은 중심부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기술습득의 기회를 놓치게 되어 주변적인 고용시장에

참여하게 되거나 철저히 사회에 의존하게 되는 운명에 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이들을 저소득 계층에 머물도록 함으로써, 세대 간 빈곤의 대물림이 순환적으로 일어날 확률 또한 높아지게 된다. 이렇듯 학업중단은 교육적, 직업적 발달의 기회를 봉쇄시키고, 신체적, 정서적, 경제적인 문제들을 더욱 악화시키는 순환 고리를 증가시킨다(Bloom. D., 2010).

이에 학업중단 청소년은 학업중단 이후 최소한 고등학교는 졸업해야 한다는 걸 직접 체험하게 되고, 학업을 계속 지속하고자 하는 희망을 가지게 된다(김혜영, 2002; 배영태, 2003; 장석민, 2002). 조영승, 구본용, 신현숙, 유순덕(2001)의 연구에서도 학업을 그만둔 청소년들 중 절반 정도가 학교에 복학하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보고하였고, 중단 이후 복학절차, 검정고시 준비, 직업교육 등과 관련된 도움을 바라고 있다고 하였다.

하지만 학업중단 청소년 대부분은 다음의 여러 요인들로 복학을 이루지 못한다. 첫째, 학업성취도 부진, 학습의욕과 흥미 결여, 낮은 자아존중감과 자기조절 능력이 결여되어 있다(노상우, 2004). 둘째, 동기가 낮고, 비자발적이며, 소극적이고 회피적인 행동(김동민, 금명자, 권혜수, 이소영, 이희우, 이광호, 2003)을 하며, 생활태도가 불규칙하고, 꿈이 없다(강석영, 양은주, 이자영, 2009). 셋째, 대인관계 기술이 결여되어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이들은 자신보다 어린 동급생들과 잘 지낼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 친구들과의 갈등, 교사 및 학교제도에 대한 불만, 선입견을 가진 교사와의 관계(김동민, 금명자, 권혜수, 이소영, 이희우, 이광호, 2003) 등을 우려하므로 복교를 꺼린다. 학업중단 청소년에게서 나타나는 대인관계영역의 문제들은 이들의 심리 사회적 적응을 힘들게 한다.

학업중단 청소년의 특성을 심리적으로 좀 더 살펴보면, 자신을 자각함으로써 형성된 자기개념과 이러한 개념에 자신 스스로 의미를 부여하는 가치인 자아존중감이 저하되어 자신의 능력과 성공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경향이 높다(이숙영, 남상인, 이재규, 1997; hammond, C., Linton, D., Smink, J., & Drew, S., 2007). 또한 자기조절 능력의 결여와 같이 자신을 통제하는 능력의 문제를 가진다. 곧, 학업중단 청소년은 학교 부적응 청소년에게서 나타나는 자존감 저하, 의사결정과 선택의 어려움, 삶의 다양한 부분에서의 통제력 부족, 미래에 대한 기대와 자신감 부족 등을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다(김범구, 2012; 유성경, 이소래,

1998; 허철수, 1998).

부적응을 경험하는 청소년은 자신들의 문제적 행동과 생활의 원인을 다른 사람의 탓이나 자신이 조절할 수 없는 상황이나 환경으로 돌리는 경향이 높다. 또한 부적응 청소년은 자신의 앞날에 대해 미리 한계를 정해버리고, 단기적이거나 현실적인 목적조차 가지지 못하며,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도 아무런 기대조차 하지 않는다. 이러한 특성은 결국 이들을 학교 및 사회부적응적인 행동을 해도 좋을 것이 없다는 자포자기의 상태로 만든다. 학업중단 이후에도 불규칙하고 무절제한 생활을 지속하게 만들며, 학업복귀를 하더라도 그 후의 규칙적인 생활에 대해 적응하기 힘들어 하는 모습을 보이게 한다(McWhirter, J., McWhirter, B. T., & McWhirter, E. H., 2007).

원만한 대인관계 기술은 학교나 사회에서 심리정서적인 적응과 시기적으로 필요한 발달과정에 중요한 요소이고, 성인기로의 적응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학업중단을 경험한 많은 청소년들이 친구관계를 통해 형성되는 우정을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능력과 또래들과 행복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기술이 부족하다. 그리고 집단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적절하고 효과적인 대화를 나누며, 다양한 또래들과 상호작용하는 방법 또한 익히지 못했다. 이러한 기술들의 결여는 타인의 감정이나 행동을 포함한 상대방의 관점을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의 부족으로 연결되어 대인관계에서의 오해와 왜곡된 해석을 가져오기도 한다. 또한 높은 공격성으로 인해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 대화보다는 충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또래로부터의 거부를 불러올 수 있다(양미진, 지승희, 이자영, 김태성, 홍지연, 2006).

따라서 학업중단을 겪은 청소년들이 효율적으로 심리적·정서적·사회적으로 적응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지식적 측면, 정서적 측면, 자신의 삶에 주체적으로 임하는 의지적 측면에서의 부적응이 상호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그들이 겪는 현실과 사회에서의 어려움을 견뎌내고 극복함으로써, 자신의 진로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탐색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가족 내에서의 갈등이나 가출, 비행과 범죄의 노출, 원만하지 못한 대인관계, 삶에 대한 무기력, 진로탐색에 대한 동기 저하 등에 따른 적응 요소들은 그들의 환경이나 맥락에 따라 다를 것이다.

## 2. 청소년기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

### 1) 청소년의 스트레스

스트레스는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나 생활 속에서 경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신적 부조화, 정서불안, 심리부적응 등의 정신적인 장애를 가지고 살아간다(오선영, 2012). 특히, 전 연령층 중에서 청소년기의 경우 아동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과도기로 이 시기에 겪는 급격한 신체적, 정신적, 인지적, 사회적인 변화는 그 자체로도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며(홍영수, 2004), 이러한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 복합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자아정체감을 형성하게 되면서 상당한 심리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오선영, 2012). 이처럼 변화가 많고 불안정한 시기에 있는 청소년들은 부정적인 경험을 하게 될 경우 스트레스에 취약해지며,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청소년기의 스트레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Cauffman, Claus, Shulman, Banich, Graham, Woolard & Steinberg, 2008).

청소년들은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부모, 친구 관계 등으로 인한 여러 가지 정서적 갈등들과 성적 및 학업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을 겪으면서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김미경, 김유나, 김신희, 2011; 박소영, 문혁준, 2005; 이정미, 이지연, 장진이, 2012; 정은옥, 2008). Causey와 Dibow(1992)는 청소년기의 자발적인 자기통제 능력의 저하, 가치관에 대한 무조건적인 대처 행동이 스트레스 수준을 더욱 높인다고 보았으며, 청소년기는 가정, 학교, 동료 등 다양한 집단에서의 역할의 상이함으로 인한 혼란으로 인해 스트레스가 발생한다고 보았다. 국내 여러 연구(권혁호, 2003; 김준호, 이동원, 1996; 박정희, 2003; 허진희, 2007)들에서도 한국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요인들을 분석해보면, 가정적 측면에서는 부모 관련 스트레스, 학교적 측면에서는 공부 및 성적, 친구관계 스트레스 그리고 사회적 측면에서는 외모, 신체, 경제적 문제 관련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는 건강 유지와 삶의 만족, 학업에서의 성취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효율적이지 못한 대처방식을 야기한다. 이 시기의 청소년들은 새로운 변화에 대하여 우왕좌왕하며 대처하지 못하며 이로 인하여 불안, 긴장, 좌절, 우울 등

에 휩싸여 정서적인 문제를 경험하게 된다(Glozah, 2014). 특히,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사회적 인식에 따른 편견과 낙인론적 시각, 새로운 환경에 대한 재적응이 요구되는 상황, 그리고 성인기로 진입하기 위한 진로에 대한 준비 등에 대하여 과도한 스트레스를 다양하고 지속적으로 경험하게 된다(성운숙, 2005). 그러므로 학업중단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는 청소년의 신체적이고 정서적인 건강을 위하여 중요하며, 더 나아가 성인기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책임감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해 가정 및 학교, 사회에서 교육하고 지도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스트레스가 심할 경우에는 신체적, 심리적, 정서적인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며, 일탈 행위나 부적응 등의 문제행동을 유발하므로 청소년들에게 심리적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Grotpete & Crick, 1996). 그러므로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받고 있는 스트레스에 대해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청소년들의 신체적, 정서적인 건강 뿐 아니라 발달단계 중 성인기를 앞두고 사회의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와 가정에서 지도 할 때 도움을 줄 수 있다(김현지,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스트레스를 개인과 환경의 역동적 상호작용의 관점에 초점을 두고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식에 대해 일반청소년과 학업중단 청소년 간의 비교 분석을 해보고자 한다.

#### (1) 일반청소년과 학업중단 청소년의 부모 관련 스트레스

가정은 사람이 탄생하면서 최초로 인간관계를 경험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임과 동시에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기초가 되는 곳으로써 애정, 신뢰, 존경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해가는 혈연적 집단이다. 그러나 현대 가정이 핵가족화로 변모함에 따라 가족 간의 권력구조와 성 역할에 변화, 부권의 권위약화, 모의 취업증가, 소자녀화 추세, 별거 및 이혼부부의 증가 등으로 청소년들의 정서불안 수준은 점차 증가추세에 있다.(이미숙, 2001) 가정은 부모와 자식 간에 함께 생활을 하면서 개인적인 욕구를 정상적으로 충족해주며, 또한 가정은 자녀교육을 위하여 자율성과 결속성, 일관성이 겸비된 환경을 유지하는 곳이다(김홍수, 2000).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가족원간의 상호작용에 따른 스트레스를 보고한 한성애(2006)는 부모와의 의사소통의 문제는 학교생활과 개인생활 모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즉 가정에서 부모의 지지와 의사소통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청소년은 스트레스에 노출 될 수밖에 없다.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김형선(2001)은 비행청소년이 일반청소년보다 부모관련 스트레스를 더 느끼고 있다고 했으나 강은정(2013)은 일반청소년이 비행청소년보다 부모 관련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있다고 하였다.

### (2) 일반청소년과 학업중단 청소년의 성적 및 학교 관련 스트레스

청소년기에는 가정에서 생활 보다 학교에서 하루 일과를 더 많이 보내고 있으며, 우리나라 청소년의 경우, 입시경쟁으로 인해 성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또한 학교생활에서 또래 친구와의 관계가 힘들거나, 학교를 적응하지 못하고 학업중단을 하는 청소년들이 발생하고 있다. 오현성(2008)은 고등학교 학생의 학교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행동 연구에서 보면, 학교생활 스트레스가 가장 높게 나왔다고 했으며 이는 진로문제와 대학입시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스트레스 문제는 학교 성적과 관련이 많이 있으며, 그 정도가 심각하다 이정숙(1982), 오가실(1900). 방미리(2010)의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연구에서도 초등학생을 비롯한 중·고등학생 모두가 학교생활 스트레스를 가장 크게 받고 있었으며, 김형선(2001)과 이정남(2003)은 일반청소년이 비행청소년보다 시험 및 성적 관련 스트레스를 더 받고 있다고 하였고, 강은정(2013) 또한 일반청소년이 비행청소년보다 시험 및 성적 관련 스트레스를 더 받는다고 하였다.

### (3) 일반청소년과 학업중단 청소년의 친구 관련 스트레스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그들의 가족과 함께 지내는 것보다 또래와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을 선호하는데 청소년들은 친구나 또래들을 통해 도덕적 판단과 가치들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인지적, 사회적 자원을 얻는다(한국청소년개발원, 2004). 청소년 시기는 부모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양한 대인관계를 맺고 관련된 기술을 배워 나가는 시기이고, 이는 이들의 삶에 전반적으로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대인관계의 중요성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시기에 대인관계의 결핍이나 문제는 생활의 부적응으로 삶을 위협할 뿐 아니라, 이후 사회에 적응해

나가는데 어려움을 겪게 한다(한상철, 1998).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박민호(2009)은 비행청소년이 일반청소년 보다 친구관련 스트레스를 높게 인식한다고 하였으며, 김형선(2001)의 연구에서는 친구 관련 스트레스는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고 하였으나, 이정만(2003)은 일반청소년이 비행청소년보다 친구 관련 스트레스를 더 받고 있다고 연구에서 보고하였다.

#### (4) 일반청소년과 학업중단 청소년의 외모 관련 스트레스

21세기는 외모지상주의라고 할 수 있다. ‘몸짱’, ‘얼짱’의 문화에 이어 하루가 멀다 하고 각종 대중매체를 통해 쏟아지는 연예인 성형 열풍과 다이어트 열풍 등까지 일반인들에게도 확산될 뿐 아니라 청소년에게도 예외는 아니다.

청소년기의 경우 다른 시기보다 신체적 자아에 대해 가장 중점을 두는 시기로, 외모를 더 중시하고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타고난 자신의 외모를 변화시키고 향상시키고자 한다. 특히 헤어스타일, 화장, 체중, 성형 등 외모 관련 행동이 나타난다. Guiney와 Furlong(1999)은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의 신체에 대한 평가가 신체불만을 발생시키는 중요한 요인임을 주장하였다. 특히 아동기보다는 사춘기를 겪고 있거나 사춘기가 지난 청소년에게 친구들의 영향력이 높았고, 신체에 대한 부정적 피드백이 많으면 많을수록 신체에 대한 만족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이 부정적인 신체이미지를 갖는 경우 자신보다 타인을 더 매력적으로 인식하거나 자신을 실패자로 인식할 수도 있다(박정임, 2016).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문윤진(2010)은 청소년의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분석에서 남성과 여성 두 집단에서 47.6%로 청소년들이 외모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에 따라 남자는 보통이다 49.5% 여성은 매우 관심이 많은 편으로 55%로 나타났다. 김형선(2001)은 비행청소년이 일반청소년보다 외모 관련 스트레스를 더 받고 있다고 하였다.

#### (5) 일반청소년과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제적 문제 관련 스트레스

가정의 생활수준은 청소년의 전반적인 부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더구나 상대적으로 친구보다 자신이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느낄 때는 심각한 수치심과 욕구 불만이 발생할 수 있다. 가정생활에 필요한 경제적 및 물질 자원의 결여는 집

단이 존속과 생명의 유대에 관계되는 중요한 문제이다. 이런 의미에서 빈곤은 가족생활의 곤란 중 가장 기본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김두진, 1982) 이러한 빈곤 가정은 교육의 결여, 거주지의 빈번한 이동, 청소년의 지능, 건강, 학습 등에 지장을 주고 정서적, 감각적, 사회적 행동의 발달이 지연되며 교우 관계의 형성의 어려움을 초래한다.(전유자, 1982)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김형선(2001)은 비행청소년이 일반청소년보다 경제적 문제관련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에 내용들을 고려한 일반청소년과 학업중단 청소년의 스트레스(부모, 성적 및 학교, 친구, 외모, 경제적 문제)의 차이를 비교 살펴보고자 한다.

## 2) 스트레스 대처방식

청소년기는 과도기적 특성으로 인하여 신체적, 생리적 변화, 애매한 사회적 위치로 인한 역할갈등, 현대사회의 경쟁지향적인 장래에 대한 부담과 불안, 과중한 학업부담과 같이 일상적 스트레스를 겪고 스트레스로 인하여 다양한 부적응을 경험하게 되므로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대한 이해는 중요하다고 설명한다(윤혜정, 유안진, 2003). 스트레스 개념은 초기에는 반응으로 인식되었으나, 스트레스를 반응으로 정의할 때 그 반응이 스트레스 반응인지 일상생활에서의 반응인지를 구별해 내는데 어려움이 있을 뿐만 아니라 동일한 스트레스 반응이라도 긴장원인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구분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고영실, 2006). 따라서 스트레스에 대한 정의는 스트레스를 단순히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서 보다는 점차 환경적 조건자극으로서의 의미로 가까워지게 되었다. 그러나 동일한 스트레스 상황이라 할지라도 각 개인에게는 다른 맥락으로 다가오므로 스트레스 개념은 환경적 자극이 개인의 지각이나 관점과 상호 연관되어 있다는 관계론적 입장으로 선회한다. 이 입장의 대표적 연구자인 Lazarus(1984)는 “심리적 스트레스란 개인이 자신이 가진 자원을 필요로 하거나 그 한계를 초과하며, 개인의 안녕을 위협한다고 평가되는 개인과 환경 사이의 특정한 관계”로 정의한다(박진아, 2001). Laster(1981)에 의하면 스트레스는 어려움의 원인을 극복해내려는 본능적이고 보편적인 반응이며 스트레스란 누구에게나 객관적인 특성으로 다가가지만 그로 인한 긴장은 사람에 따라 주관성을 띠고 달라지는 반응이라고 보았다. 그러



므로 각 개인이 느끼는 스트레스는 다양하며 인식하는 정도가 개인마다 다르기에 따라 형성되는 관점이나 평가도 주관적으로 다르게 된다. 이는 곧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의 대처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박현진(1997)은 스트레스 지각은 개인에 따라 정도에 차이가 있으므로 각 개인의 주관적 경험을 위주로 한 스트레스 연구의 필요성이 제기하였고, Moos와 Billings(1984)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성공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실패하게 되며 사회적인 부적응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을 강조한다(고영실, 2006). 또한 스트레스는 외부에서의 요구와 그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능력 사이의 불균형 상태로 특히 그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과 그렇지 못할 경우 기대하고 있는 결과가 다를 때 나타나게 된다. 이때 스트레스는 반드시 피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행동의 동기 요인이 되기도 하며 삶의 목적에 있어서 건설적인 목적을 부여해 주기도 한다(박경희, 2003). 따라서 학업중단 청소년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자극에 대하여 회피하거나 상황에 몰두하기 보다는 적절한 대처방안을 다양하고 폭넓게 강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여진다.

Moos와 Billings(1984)에 따르면 스트레스 대처행동이란 스트레스를 주는 환경과의 교류관계에서 내적, 외적 요구를 조절하고, 개인이 받은 피해를 최소화하거나 견디려는 인지적이며 행동적인 노력을 의미한다(고영실, 2006). White(1974)에 의하면 대처방식에는 환경에 대한 적절한 정보를 확보하는 것, 정보를 처리하거나 행동하는 데 있어서 안정된 심리내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것, 그리고 융통성 있게 자기의 능력자원을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유지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보았다(이미선, 2003). 그 중 가장 널리 알려져 있으며 광범위하게 적용된 대처방식의 개념은 Folkman과 Lazarus(1984)의 교류이론에 바탕을 둔 대처방식이다. 그들은 대처를 개인의 능력을 요구하거나 초과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특정한 내외적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변화하는 인지적이고 행동적인 노력이라고 정의하였다.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대해 논의되고 있는 전통적인 세 가지 관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자아분석가들은 자아과정이나 방어에서 이를 바라보고 있다. 정신역동적 심리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방어기제들을 스트레스(불안)를 다루기 위한 대처라고 보는 것이다. 대처에 있어 정서적 균형을 중시하고 있으며, 특히 긴장 감

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문제 해결 기능을 간과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Lazarus & Folkman &, 1984).

둘째, 대처를 성격적 혹은 기질적 특성으로 보려는 성향적 관점에서는 성격특성을 개인이 긴장상황에서 드러내는 행동양식으로 본다(Lazarus & Folkman, 1984). 그러나 이 관점은 다양한 대처행동 반응을 설명하지 못하고 대처행동이 개인의 인성특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기 때문에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사고를 통해 적응적으로 대처하려는 인간의 능력을 과소평가하고 있으며 스트레스가 유발된 상황적 맥락, 사회적 지지망 등 대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요인을 간과함으로써 대처행동 과정을 지나치게 단순화했다는 점과 대처 행동의 경향성을 임상에서의 추론과정을 통해 규명함으로써 과학적 검증성이 부족하다는 제한점이 있다(최해경, 2012).

셋째, 상황 지향적 관점으로 상황에 대한 인지적 평가를 대처방식의 중요한 변수로 설명한다. 이 관점은 자아과정의 관점이나 인성적 관점보다 더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대부분이 흔하지 않은 상황에서 적용 결과를 매개하는 대처 전략을 알아보려는 시도였기 때문에 일반화가 어렵고, 소규모 집단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표집의 대표성이 의심스럽고 주로 회상적 정보에 의존하고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황미정, 2004).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유형 또한 연구자에 따라 각자 다른 차원으로 접근한 내용을 주장한다. Pearlin과 Schooler(1978)은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문제지향적 대처, 인지적 대처, 정서완충적 대처로 분류했고 다양한 유형의 대처행동이 스트레스 감소에 더 효과적이라고 한다(박경희, 2003). Goldberger(1982)는 자아기능이 강하게 작용하여 환경을 스스로 통제함으로써 성취와 독립을 추구하는 능동적 대처, 자신을 환경에 맞게 변화시킴으로써 외부에 순응하는 수동적 대처, 모든 것을 신비나 우연에 맡기려는 신비적 대처로 구분한다(박경희, 2003). Moos와 Billings(1984)는 상황의 의미를 규정하는 평가지향적 행동, 실제상황을 다룸으로써 스트레스원을 소거하려는 문제지향적 대처행동, 스트레스원에 관련한 정서를 통제하거나 평형상태를 유지하는 정서지향적 대처행동으로 분류한다(박경희, 2003). Lazarus 와 Folkman(1984)은 스트레스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개인이 취하는 대처행동을 문제지향적 대처와 정서지향적 대처로 나누었다. 문제지향

적 대처는 개인이 직접 문제적인 행동을 변화시키든지 상황적 조건을 변화시켜 스트레스에 대처하려는 직접적인 노력이고, 정서지향적 대처는 스트레스와 연관되거나 스트레스로부터 유발되는 정서 상태를 통제하려는 노력이다. 김정희(1987)는 Lazarus(1984)가 개발한 대처방식 척도(The Ways of Coping Checklist)에 기초하여 요인 분석 한 결과, 문제지향적 대처방식(문제 중심 대처), 사회적지지 추구 대처방식, 소망적 사고 대처방식, 정서완화적 대처방식(정서중심 대처) 등으로 대처방식을 구분하였다. 또한 문제중심 대처와 사회적지지 추구는 적극적 대처로 정서중심 대처와 소망적사고 대처는 소극적인 대처로 분류하였다(서신영, 1999).

그 후 Endler·Parker(1990)는 회피중심 대처방법을 추가하여 과업중심, 정서중심, 회피중심으로 구분함으로써 스트레스 대처방법 척도에 관한 신뢰도를 높였다. 문제중심과 관련이 있는 과업중심은 문제에 대한 재구조화 또는 문제해결을 위한 최대 효과를 위한 시도로써, 상황을 통해 조정하고 배우려는 시도를 통해 이를 관리하고, 문제해결을 직접 제시하는데 사용하는 전략들을 포함한다. 정서중심적 대처는 문제나 정서지향 반응에 대한 공상과 반추를 사용하여 문제에 몰두하는 것으로써, 사건에 대한 공상, 감정적인 반응, 자기편견 등을 말한다. 회피중심적 대처는 사회적 상호작용에 전념하거나 다른 데에 마음을 돌림으로써 당장의 문제에서 개인의 관심을 전환시키려는 행위를 말한다(박용천, 김광일, Noh, 2000).

최근에 보고된 연구들에 의하면, 김준호, 이동원(1996)은 스트레스를 6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였고 대처방식도 단기적·장기적 대처유형과 문제지향적·정서지향적 대처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청소년들의 대처유형 사용에 있어서는 문제지향적 대처유형을 가장 많이 채택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직접적인 문제해결을 지향하는 적극적 대처방식보다는 다소 소극적인 대처방식을 선택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조학래(1997)의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은 주로 혼자서 독서를 하거나 음악 감상을 하면서 혼자 해결하거나, 친구와 수다를 떨거나 다른 얘기를 나누면서 시간이 지나 잊혀지기를 바라는 방법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등 주로 소극적인 대처를 한다고 보고하였다. 김여진(2006)은 청소년이 인지한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학교적응간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지향적 대처방식과

정서완화적 대처방식을 많이 사용하고, 소망사고 대처방식과 사회적지지 대처 방식을 적게 사용할수록 청소년의 학교적응력이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박현진(1997)의 연구에서는 성격특성의 영향을 배제하고,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 지각과 대처과정만 살펴 본 결과, 스트레스를 강하게 지각할수록 정서중심적 대처와 소망적 대처를 많이 사용한다고 나타났다.

인구사회학적 배경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먼저, 성별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차이를 보면 스트레스 대처방식은 스트레스 상황, 연령, 성별에 따른 대처방법에서 그 차이가 있다(변우영, 2005). 여학생이 남자청소년보다 방어기제를 더 많이 사용하였고(장숙희, 2005), 여자 청소년이 남학생보다 스트레스 대처기술을 더 많이 사용하며 특히 주변사람이나 공적기관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회적지지 추구대처방식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보고하였다(김승원, 2000). 또한 여자청소년이 타인과 의논하고 상담하는 대처비율이 높았으며(이도영, 1990), 여자청소년이 소극적인 대처기술을 많이 사용하고 남자 청소년은 적극적인 대처기술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보고한다(이경희, 1996). 연령의 따른 영향에 대해서는, 청소년들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사회관계망지지 지각에 대한 연구에서 중학생과 대학생보다 고등학생들이 학교, 가족과 관련한 영역에서 더 많은 스트레스를 지각하고 있다고 밝혔다(윤혜정, 유안진1993). 이는 고등학생이라는 청소년의 학업적으로 중요한 시기가 대학입시에 관한 과도한 부담감을 가지게 하며 사춘기라는 발달적 특징이 맞물리게 되어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또 청소년 스트레스 대처에 있어서 연령의 효과는 전체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주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성이, 김만지, 2002).

이외에도 연구자들마다 논의하고 있는 대처유형에 관한 다양한 분류가 있으며 그 내용은 중첩되는 부분이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스트레스 대처방법을 오랜 시간과 사건에 걸쳐 인격에 의해 결정되고 그 개인에 의해 선택되는 정형화되고 조절된 반응으로 간주한 Endler와 Parker의 스트레스 대처 방식(과업중심, 정서중심, 회피중심 대처방식)을 일반청소년과 학업중단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 방식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3.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의 관계

스트레스에 관한 다양한 관점들 가운데 대표적인 세 가지가 있다. 먼저, 개인에게 주어지는 자극을 스트레스로 보는 관점이다. 이 관점에서는 일상생활 속에서 개인이 접하는 다양한 자극(사람들과의 관계, 자연환경, 그리고 사건과 사고 등), 즉 스트레스(stressor)를 스트레스로 본다. 두 번째는, 변화나 사건(즉, 스트레스)에 대한 우리의 생리적 반응을 스트레스로 보는 관점이다. 다양한 상황이나 변화를 만나게 되면, 흔히 우리는 그러한 환경에 대처(또는 적응)하기 위해 신체적 또는 생리적 반응(혈압이 오르거나 얼굴이 빨개지거나 가슴이 뛰는 경우)을 보이게 된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를 개인과 환경(자극)과의 상호작용 결과로 보는 관점이다. 두 번째 관점에서처럼 우리는 어떤 환경(A)에 처하여 스트레스를 경험하면 이에 대처하기 위한 신체적으로 생리적으로 반응을 나타내게 된다. 하지만 문제는 (A)라는 특정한 상황에 닥쳤을 때 스트레스를 받을지 받지 않을지, 혹은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지 적은 스트레스를 받을지는 개인에 따라 차이가 있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 개개인이 보이는 신체적(또는 생리적) 반응에서도 차이가 난다. 다시 말하면, (A)라는 상황에서 어떤 신체적(또는 생리적) 반응을 보일지의 여부는 그 개인이 (A)라는 상황을 스트레스로 지각하는지의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이처럼 개인과 환경(자극)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스트레스가 선택되는 과정에는 환경(자극)의 특성과 함께 그 환경에 대한 개인의 지각, 인지 등의 관점과 대처능력과 같은 다양한 변인이 관련된다. 이렇게 본다면 스트레스는 개인이나 환경(자극) 가운데 어느 한쪽의 관점이 아니라 양자 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라는 관점에서 이해하는 것이 보다 더 타당하다. 실제로 오늘날 스트레스를 설명하는 관점 중 가장 영향력이 있는 것은 세 번째 관점, 즉 리처드 라자러스(Richard Lazarus)가 제안한 상호작용적 관점이다(오세진 외, 2014).

Moos(1985)는 효율적인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사용할수록 스트레스의 수준이 낮아진다고 주장하였다. 스트레스 대처방식 중 적극적 대처와 소극적 대처는 모두 스트레스 요인과 정적인 상관을 보이며(김근환, 2004), 문제중심적 대처와 정서중심적 대처 또한 모두 스트레스 요인과 정적인 상관을 보인다(김미례, 홍경자, 양승남, 2002). 간호학생의 스트레스 수준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과의 관계에

서는, 스트레스 대처방식으로 정서중심 대처방식보다는 적극적인 문제중심적 대처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스트레스 수준이 낮게 나타난다고 하였다(김정엽, 2006). 또한,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이 통제가능하다고 생각되면 문제중심적인 대처를 취하고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생각이 되면 정서중심적인 대처방식을 사용한다고 한다(Lazarus & Folkman, 1984).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상호작용적 관점에서 스트레스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스트레스가 결정되는 과정에서의 환경적 특성뿐만 아니라, 그 환경에 대한 개인의 반응 중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중점을 두고 그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제주도내에 학업중단 청소년과 제주지역 소재 고등학교를 다니는 재학생 고1 ~ 고2 일반청소년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일반청소년은 도내 모집단 34개 고등학교 중 제주시내 ○고등학교, ㄱ고등학교, ㅎ고등학교 대상으로 3곳 학생을 대상으로 300명에게 실시하여 284부(94.6%) 학업중단은 도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야간학교, 검정고시학원, 청소년쉼터, 소년원에 입소한 청소년 100명에게 실시하여 95부(95%)회수하여 자료를 최종 통계분석에 사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표 1에서 살펴보면, 일반청소년은 남자 133명, 여자 151명으로 여자가 많은 반면 학업중단 청소년은 남자 69명 여자26명으로 남자가 많다. 이는 일반청소년의 경우 남녀비율을 비슷하게 선정하여 조사했지만 학업중단 청소년 남자가 훨씬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학년에서 일반청소년의 경우 고등학교 1학년이 190명, 고등학교 2학년이 94명이고,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17세가 35명, 18세 이상이 60명으로 고등학교 1학년이 가장 많고, 다음으로 고등학교 2학년 학업중단 18세 이상, 17세 순이었다.

성적에 있어서는 일반청소년은 중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은 하, 상의 순이고,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도 중이 높고, 다음은 하, 상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 상태에서는 일반청소년의 경우 300만원이상 ~ 400만원 미만 가장 높고, 500만원 이상,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100만원 미만 순으로 나타났다.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이 가장 높고, 300만원이상 ~ 4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100만원 미만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청소년이 학업중단 청소년 보다 경제 상태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적 분석

(단위 : 명(%))

		일반 청소년	학업 중단 청소년	
성별	남자	133(65.8)	69(34.2)	202(100)
	여자	151(85.3)	26(14.7)	177(100)
현재학년	고등학교 1학년	190(100)	-	190(100)
	고등학교 2학년	94(100)	-	94(100)
	17세	-	35(100)	35(100)
	18세 이상	-	60(100)	60(100)
성적	상	40(87)	6(13)	46(100)
	중	192(79.6)	49(20.4)	241(100)
	하	52(56.5)	40(43.5)	92(100)
경제상태	100만원 미만	5(45.5)	6(54.5)	11(100)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31(52.6)	28(47.4)	59(100)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66(81.5)	15(18.5)	81(100)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	73(77.7)	21(22.3)	94(100)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40(85.1)	7(14.9)	47(100)
	500만원 이상	69(79.3)	18(20.7)	87(100)
	계	284(100)	95(100)	379(100)

## 2. 연구 절차

본 조사에 앞서 질문지 문항 내용의 적절성을 검증하고자 2017년 2월 20일~21일 도내 학업 중단 청소년 10명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 조사 결과 응답에 어려움이 없었어, 본 설문 조사에 적용하여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2017년 2월 27일 ~ 2017년 3월 31일 까지 약 한달 동안 학교,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청소년야간학교, 검정고시학원, 청소년쉼터, 소년원을 방문하여 각 선생님들을 협조로 조사를 실시하였다.



### 3. 연구도구

#### 1) 청소년의 스트레스 측정도구

청소년의 스트레스 측정도구는 김준호와 이동원(1996)의 도구를 박민호(2009)가 재구성한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청소년의 스트레스 측정도구는 부모, 성적 및 학교, 친구, 외모, 경제적 문제 관련으로 5개 영역, 26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 에서부터 아주 많이 그렇다(5점)로 본 문항에 대한 응답은 5단계 평점 척도로 되어있다. 즉 연구에서 활용된 질문지는 스트레스 요인과 정도를 리커트 척도(Likert Scales)에 따라 점수가 높을수록 스트레스 정도가 심한 것으로 점수화 되어있다.

표 2. 스트레스 측정도구 문항구성

하위영역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s $\alpha$
부모	7	1,2,3,4,5,6,7	.830
성적 및 학교	6	8,9,10,11,12,13,	.705
친구	6	14,15,16,17,18,19	.859
외모	3	20,21,22	.703
경제적 문제	4	23,24,25,26	.767
전체	26	1~26	.878

#### 2) 스트레스 대처방식 측정도구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 방법에 관한 측정도구는 Endler와 Parker가 개발한 측정도구를 박용천, 김광일 Noh(2000)가 한국 고등학생에 대한 스트레스 상황대처검사를 위해 번안한 질문지이다. 이 도구는 기질에 따른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측정하는 도구로서 과업중심, 정서중심, 회피중심의 3가지 하위척도로 구성된 48 문항의 도구이다. 이 도구를 박민호(2009)가 과업중심, 정서중심, 회피중심 3개 영역, 30문항으로 수정·보안하여 재구성한 것을 사용하였다. 본 문항에 대한 응답은 5단계 평점척도로 전혀 없다(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Liker Scale)로 구성되었다.

표 3. 스트레스 대처방식 측정도구 문항구성

하위영역	문항수	문항번호	Cronbach's $\alpha$
과업중심	10	1,2,3,4,5,6,7,8,9,10	.904
정서중심	10	11,12,13,14,15,16,17,18,19,20	.887
회피중심	10	21,22,23,24,25,26,27,28,29,30	.851
전체	30	1~30	.861

#### 4. 자료처리

본 연구의 자료는 SPSS 18.0을 사용하여 통계처리 되었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의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질문지 문항의 신뢰도 분석은 Cronbach's  $\alpha$  검증을 실시하였다.

둘째, 일반청소년과 학업중단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식은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기초자료인 평균, 표준편차를 구하고, t검증을 실시하였다.

셋째, 청소년이 인식한 스트레스와 대처방식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 IV. 연구결과 및 해석

### 1. 일반청소년과 학업중단 청소년의 스트레스 차이

#### 1) 일반청소년과 학업중단 청소년의 스트레스 차이 비교

표 4. 일반청소년과 학업중단 청소년의 스트레스 차이

(N=379)

스트레스	일반청소년		학업중단 청소년		t	p
	M	SD	M	SD		
부모	2.50	.73	2.03	.89	5.118***	.000
성적 및 학교	2.59	.66	2.14	.82	5.402***	.000
친구	1.38	.52	1.43	.75	-.676	.499
외모	2.20	.95	2.30	1.18	.508	.612
경제적 문제	1.78	.75	1.96	.96	-1.804	.072
전체	2.12	.47	1.93	.65	3.221	.001

\*  $p < .05$ , \*\*  $p < .01$ , \*\*\*  $p < .001$

표 4에서 보는바와 같이 일반청소년과 학업중단 청소년의 스트레스 전체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일반 청소년(M=2.12)이 학업중단 청소년(M=1.93)보다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p < .01$  수준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 $t=3.221$ )가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부모 관련 스트레스는 일반청소년(M=2.50)이 학업중단 청소년(M=2.03)보다 높게 인식하였으며  $p < .001$  수준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 $t=5.118$ )가 나타났다. 성적 및 학교 관련 스트레스는 일반청소년(M=2.59)이 학업중단 청소년(M=2.14)보다 높게 인식하였으며  $p < .001$  수준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 $t=5.402$ )가 나타났다. 그에 반해, 친구 관련 스트레스는 학업중단 청소년(M=1.43)이 일반청소년(M=1.39)보다 높게 인식하였으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외모 관련 스트레스는 학업중단 청소년(M=2.30)이 일반청소년(M=2.20)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경제적 문제 관련 스트레스는 학업중단 청소년(M=1.96)이 일반청소년(M=1.78)보다 높게 나타났지

만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즉, 일반청소년은 학업중단 청소년보다 부모 관련, 성적 및 학교 관련 스트레스를 더 받고 있으며, 학업중단 청소년은 일반청소년보다 친구 관련, 외모 관련, 경제적 문제 관련 스트레스를 더 받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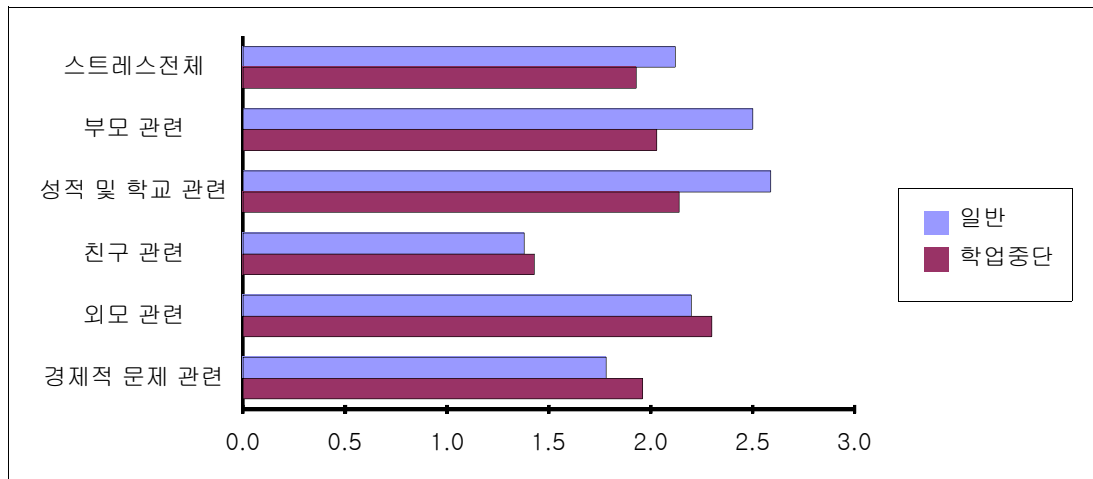


그림 1. 일반청소년과 학업중단 청소년의 스트레스 차이 비교

## 2. 일반청소년과 학업중단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차이

### 1) 일반청소년과 학업중단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차이 비교

표 5. 일반청소년과 학업중단 청소년의 대처방식 차이

(N=379)

스트레스 대처방식	일반청소년		학업중단 청소년		t	p
	M	SD	M	SD		
과업중심	3.05	.70	2.84	.82	2.343*	.020
정서중심	2.67	.81	2.40	.82	2.765**	.006
회피중심	3.14	.81	3.17	.92	-.272	.786
전체	2.95	.50	2.80	.54	2.327*	.021

\*  $p < .05$ , \*\*  $p < .01$ , \*\*\*  $p < .001$

표 5에서 보는바와 같이 일반청소년과 학업중단 청소년의 대처방식 전체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일반 청소년(M=2.95)이 학업중단 청소년(M=2.80)의 대처방식은  $p < .05$  수준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 $t=2.327$ )가 나타났다.

일반청소년과 학업중단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 과업중심 대처방식은 일반청소년(M=3.05)이 학업중단 청소년(M=2.84)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p < .05$  수준에서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 $t=2.343^*$ )가 나타났다. 정서중심 대처방식도 일반청소년(M=2.67)이 학업중단 청소년(M=2.40)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p < .05$ 수준에서 집단 간 차이( $t=2.765^{**}$ )가 나타났다. 회피중심 대처방식은 일반청소년(M=3.14)이 학업중단 청소년(M=3.17)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학업중단 청소년은 일반청소년보다 과업중심, 정서중심 대처방식을 덜 사용하며, 학업중단 청소년은 일반청소년 보다 회피중심 대처 방법을 더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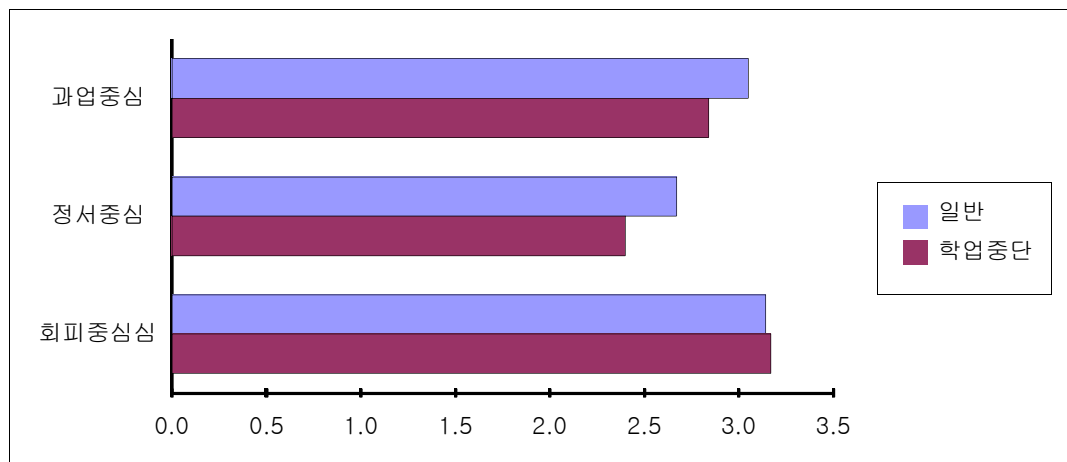


그림 2. 일반청소년과 학업중단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 비교

### 3.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간의 상관관계

#### 1) 전체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상관관계

표 6. 전체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상관관계

(N=379)

	부모	성적 학교	친구	외모	경제적 문제	스트레스	과업	정서	회피	대처방식
부모	1									
성적 학교	.378**	1								
친구	.317**	.399**	1							
외모	.184**	.286**	.348**	1						
경제적 문제	.324**	.318**	.444**	.449**	1					
스트레스	.730**	.717**	.698**	.585**	.685**	1				
과업	.019	-.002	.020	-.107*	-1.31*	-0.42	1			
정서	.319**	.483**	.347**	.373**	.282**	.517**	.123*	1		
회피	.020	.027	-.045	.079	.055	.035	.225**	.040	1	
대처방식	.189**	.267**	.168**	.188**	.117*	.272**	.662**	.609**	.670**	1

\*  $p < .05$ , \*\*  $p < .01$ , \*\*\*  $p < .001$

전체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전체 청소년의 스트레스 전체와 스트레스 대처방식 전체는 정적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r=.272$ ,  $p<.01$ ). 스트레스 하위요인들과 대처방식의 하위요인들과의 관계의 경우, 부모관련 스트레스에서는 정서중심 대처방법( $r=.319$ ,  $p<.001$ )과 정적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부모관련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청소년일수록 정서중심 대처방식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성적 및 학교 관련 스트레스는 정서중심( $r=.483$ ,  $p<.001$ )과 정적상관이 나타났고, 친구 관련 스트레스는 정서중심( $r=.347$ ,  $p<.001$ )과 정적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성적 및 학교 관련, 친구 관련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수록 정서중심 대처방식을 사용한다고 알 수 있다. 외모 관련 스트레스에서는 과업중심( $r=-.107$ ,  $p<.05$ )과 부적상관, 정서중심( $r=.373$ ,  $p<.001$ )과 정적상관관계가

보였다. 이는 외모 관련 스트레스를 받으면 과업중심 대처방식보다 정서중심 대처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경제적 문제 관련 스트레스 또한 과업중심 ( $r=-.131, p<.05$ )과 부적상관, 정서중심( $r=2.82, p<.001$ )과 정적상관을 보였다. 이는 경제적 문제 관련 스트레스를 받으면 과업중심 대처방식보다 정서중심 대처방식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전반적으로 스트레스와 대처방식의 관계에서 스트레스가 회피중심 간에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었으나, 대체적으로 과업중심과 정서중심 대처방식 간에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있었다.

## 2) 일반청소년과 학업중단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상관관계

표 7. 일반청소년과 학업중단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상관관계

(N=379)

	대상	부모	성적 학교	친구	외모	경제적 문제	스트레스	과업	정서	회피	대처방식
부모	일반	1									
	중단										
성적 학교	일반	.269*	1								
	중단	.450**									
친구	일반	.234**	.424**	1							
	중단	.520**	.428**								
외모	일반	.150*	.320**	.353**	1						
	중단	.304**	.313**	.339**							
경제적 문제	일반	.319	.332**	.401**	.504**	1					
	중단	.441**	.419**	.514**	.469**						
스트레스	일반	.678**	.702**	.672**	.615**	.707**	1				
	중단	.803**	.732**	.770**	.581**	.720**					
과업	일반	-.060	-.117*	-.071	-.217**	-.205**	-.182**	1			
	중단	.089	.133	.195	.038	0.44	.141				
정서	일반	.250**	.462**	.320**	.372**	.262**	.488**	.090	1		
	중단	.409**	.483**	.442**	.263**	.391**	.545**	.154			
회피	일반	.045	-.042	-.052	.031	.084	.019	.260**	.051	1	
	중단	-.018	.180	-.032	.178	-0.08	.072	.158	.022		
대처방식	일반	.130*	.171**	.110	.116	.019	.187**	.653**	.606**	.688**	1
	중단	.240*	.411**	.302**	.231**	.214*	.386**	.668**	.593**	.653**	

\*  $p<.05$ , \*\*  $p<.01$ , \*\*\*  $p<.001$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방식간의 상관성이 청소년의 집단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으로 나누어 Pearson 상관분석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과 같다. 전반적으로 일반청소년과 학업중단 청소년의 스트레스는 대처방식과 상관성이 있으며, 하위변인별로 상관관계는 정도가 다를 수 있다.

부모 관련 스트레스에서 일반청소년과 학업중단 청소년 모두 정서중심 대처방식( $r=.250, p<.001, r=.409, p<.001$ )과 정적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일반청소년과 학업중단 청소년 모두 부모관련 스트레스를 받으면 정서중심 대처방식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성적 및 학교 관련 스트레스에서는 일반 청소년과 학업중단 청소년 모두 정서중심 대처방식( $r=.462, p<.001, r=.483, p<.001$ )과 정적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일반청소년은 과업중심( $r=-.117, p<.05$ )과 부적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학업중단 청소년은 성적 및 학교 관련 스트레스를 받으면 정서중심 대처방식을 사용하는 반면, 일반청소년의 경우 과업중심 대처방식 보다 정서중심 대처방식을 사용한다고 알 수 있다. 친구관련 스트레스에서는 일반청소년과 학업중단 청소년 모두 정서중심 대처방식( $r=.320, p<.001, r=.442, p<.001$ )과 정적상관관계가 보였다. 이는 일반청소년과 학업중단 청소년 모두 친구 관련 스트레스를 받으면 정서중심 대처방식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외모 관련 스트레스에는 일반청소년과 학업중단 청소년 모두 정서중심 대처방식( $r=.372, p<.001, r=.263, p<.05$ )과 정적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일반청소년은 과업중심( $r=-.217, p<.001$ )과 부적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는 학업중단 청소년은 외모 관련 스트레스를 받으면 정서중심 대처방식을 사용하는 반면, 일반청소년의 경우 과업중심 대처방식 보다 정서중심 대처방식을 사용한다고 볼 수 있다. 경제적 문제 관련 스트레스에서는 일반청소년과 학업중단 청소년 모두 정서중심 대처방식( $r=.262, p<.001, r=.391, p<.001$ )과 정적상관관계가 나타났고, 일반청소년은 과업중심 대처방식( $r=-.205, p<.01$ )과 부적상관관계가 보였다. 이는 학업중단 청소년은 경제적 문제 관련 스트레스를 받으면 정서중심 대처방식을 사용하는 반면, 일반청소년의 경우 과업중심 대처방식 보다 정서중심 대처방식을 사용함을 알 수 있다.



#### 4. 스트레스가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

##### (1) 스트레스가 과업중심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

표 8. 스트레스가 과업중심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

(N=379)

독립 변수	일반청소년					학업중단 청소년				
	표준 오차	B	$\beta$	t	p	표준 오차	B	$\beta$	t	p
전체	.087	-.269	-.181	-3.087	.002	.178	.178	.141	1.376	.172
	R <sup>2</sup> =.033 수정된 R제곱=.029 F=.9531					R <sup>2</sup> =.028 수정된 R제곱=.069 F=1.894				

\*  $p < .05$ , \*\*  $p < .01$ , \*\*\*  $p < .001$

일반청소년과 학업중단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과업중심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표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청소년의 과업중심 대처방식에 부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beta = -.181$ ,  $p < .05$ )을 보였다. 회귀모형은 3%를 설명하고 있다. 모형에서 변수간의 다중 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하여 분산팽창계수(VIF)를 살펴보았으며 모두 10 이하로 다중공선성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과업중심 대처방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표 9. 스트레스 하위요인이 과업중심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

(N=379)

독립 변수	일반청소년					학업중단 청소년				
	표준 오차	B	$\beta$	t	p	표준 오차	B	$\beta$	t	p
부모	.060	.004	.005	.073	.942	.118	-.017	-.019	-.144	.886
성적 학교	.070	-.053	-.050	-.751	.453	.123	.094	.094	.764	.447
친구	.091	0.75	.056	.819	.413	.146	.242	.221	1.656	.101

외모	.051	-.111	-.152	-2.190	.029	.079	.021	-.030	-.266	.791
경제적 문제	.067	-.124	-1.33	-1.840	.067	.109	-.077	-.091	-.707	.481
	R <sup>2</sup> =.061	수정된 R제곱=	.044	F=.3592		R <sup>2</sup> =.049	수정된 R제곱=	-.005	F=.911	

\*  $p < .05$ , \*\*  $p < .01$ , \*\*\*  $p < .001$

표 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청소년의 경우 스트레스 하위요인이 과업중심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일반청소년의 경우 외모관련 스트레스가 과업중심 대처방식에 부적적으로 유의미한 영향( $\beta = -.152, p < .05$ )을 보였다. 회귀모형은 6%를 설명하고 있다. 모형에서 변수간의 다중 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하여 분산팽창계수(VIF)를 살펴보았으며 모두 10이하로 다중공선성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과업중심 대처방법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스트레스 하위요인은 없었다. 즉 일반청소년의 경우 외모관련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과업중심 대처 정도는 떨어진다고 예측할 수 있다.

(2) 스트레스가 정서중심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

표 10. 스트레스가 정서중심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

(N=379)

독립 변수	일반청소년					학업중단 청소년				
	표준 오차	B	$\beta$	t	p	표준 오차	B	$\beta$	t	p
전체	.090	.834	.485	9.301	.000	.110	.690	.562	6.273	.000
	R <sup>2</sup> =.235	수정된 R제곱=	.223	F=86.516		R <sup>2</sup> =.297	수정된 R제곱=	.290	F=39.351	

\*  $p < .05$ , \*\*  $p < .01$ , \*\*\*  $p < .001$

일반청소년과 학업중단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정서중심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0과 같다. 표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청소년의 정서중심 대처방식에 유의미한 영향( $\beta$

=.485,  $p<.001$ )을 보였으며, 회귀모형은 23%를 설명하고 있다.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스트레스가 정서중심 대처방법에 유의미한 영향( $\beta=.562, p<.001$ )을 보였으며, 회귀모형은 29%를 설명하고 있다. 모형에서 변수간의 다중 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하여 분산팽창계수(VIF)를 살펴보았으며 모두 10이하로 다중공선성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11. 스트레스 하위요인이 정서중심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

(N=379)

독립 변수	일반청소년					학업중단 청소년				
	표준 오차	B	$\beta$	t	p	표준 오차	B	$\beta$	t	p
부모	.061	.131	.118	2.155	.032	.100	.118	.128	1.174	.244
성적 학교	.071	.393	.323	5.534	.000	.104	.300	.299	2.880	.005
친구	.093	.131	.085	1.419	.157	.124	.213	.194	1.724	.088
외모	.051	.206	.243	4.010	.000	.067	-.010	-.014	-1.49	.882
경제적 문제	.068	-.041	-.038	-5.98	.550	.093	.099	.115	1.067	.289
	R <sup>2</sup> =.284 수정된 R제곱=.271 F=21.924					R <sup>2</sup> =.324 수정된 R제곱=.286 F=8.545				

\*  $p<.05$ , \*\*  $p<.01$ , \*\*\*  $p<.001$

표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청소년의 경우 스트레스 하위요인이 정서중심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일반청소년의 경우 부모관련, 성적 및 학교 관련, 외모관련 스트레스가 유의미한 영향( $\beta=.118, p<.05, \beta=.323, p<.001, \beta=.243, p<.001$ )을 보였다. 회귀모형은 28%를 설명하고 있다.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성적 및 학교 관련 스트레스가 정서중심 대처방법에 유의미한 영향( $\beta=.299, p<.05$ )을 보였다. 회귀모형은 32%를 설명하고 있다. 모형에서 변수간의 다중 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하여 분산팽창계수(VIF)를 살펴보았으며 모두 10이하로 다중공선성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일반청소년의 경우 부모 관련, 성적 및 학교 관련, 외모 관련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정서중심 대처방법을, 학업중단의 경우 성적 및 학교관련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정서중심 대처방법을 사용한다고 예측 할 수 있다.

(3) 스트레스가 회피중심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

표 12. 스트레스가 회피중심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

(N=379)

독립 변수	일반청소년					학업중단 청소년				
	표준 오차	B	$\beta$	t	p	표준 오차	B	$\beta$	t	p
전체	.103	.035	.020	.337	.736	.146	.103	.072	.701	.485
	R <sup>2</sup> =.000	수정된	R제곱=	-.003	F=.114	R <sup>2</sup> =.005	수정된	R제곱=	-.005	F=.491

\*  $p < .05$ , \*\*  $p < .01$ , \*\*\*  $p < .001$

일반청소년과 학업중단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회피중심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단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12과 같다. 표 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청소년과 학업중단 청소년의 스트레스가 회피중심 대처방법에 미치는 영향은 학업중단 청소년과 일반청소년 모두 회피중심 대처방법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표 13. 스트레스 하위요인이 회피중심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

(N=379)

독립 변수	일반청소년					학업중단 청소년				
	표준 오차	B	$\beta$	t	p	표준 오차	B	$\beta$	t	p
부모	.072	.046	.042	.647	.518	.130	-.096	-.094	-.741	.461
성적 학교	.084	-.063	-.052	-.757	.450	.136	.271	.242	2.003	.048
친구	.109	-1.45	-.093	-1.333	.184	.161	-.140	-.114	-.873	.385
외모	.061	.011	.013	.186	.853	.087	.153	.196	1.755	.083
경제적 문제	.080	.127	.117	.1584	.114	.120	-.074	-.077	-.613	.542
	R <sup>2</sup> =.019	수정된	R제곱=	.001	F=1.071	R <sup>2</sup> =.085	수정된	R제곱=	.033	F=1.647

\*  $p < .05$ , \*\*  $p < .01$ , \*\*\*  $p < .001$

표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청소년의 경우 스트레스 하위요인이 정서중심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성적 및 학교 관련 스트레스가 유의미한 영향( $\beta=.242, p<.05$ )을 보였다. 회귀모형은 8%를 설명하고 있다. 모형에서 변수간의 다중 공선성을 진단하기 위하여 분산팽창계수(VIF)를 살펴보았으며 모두 10이하로 다중공선성에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일반청소년의 경우 과업중심 대처방식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학업중단 청소년의 경우 성적 및 학교 관련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회피중심 대처 정도는 올라간다고 예측할 수 있다.

## V. 논의 및 결론

앞 장의 설문조사에 나타난 연구결과와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논의 및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청소년과 학업중단 청소년의 스트레스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일반청소년이 학업중단 청소년보다 스트레스를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행청소년이 일반청소년보다 더 높은 스트레스 수준을 인식하고 있다는 박민호(2009)와 김형선(2001) 보고와는 다르지만 강은정(2013)과 이정남(2003)의 일반청소년이 비행청소년보다 스트레스를 더 높게 받는다는 결과와는 맥락적으로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일반청소년은 학업중단 청소년보다 부모 관련 스트레스와 성적 및 학교 관련 스트레스를 높게 인식하고 있다. 이는 일반청소년에 비해 비행청소년이 부모와 공부 및 학교 관련 영역에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고 있고, 비행청소년이 일반청소년에 비해 시험 및 성적 스트레스를 더 많이 받는다는 김형선(2001)의 연구와는 부분적으로만 일치하나, 일반청소년이 비행 청소년보다 부모와 공부 및 학교, 시험과 성적 관련에서 스트레스를 높게 경험한다는 강영자(1996)와 강은정(2013), 이정남(2003)의 연구와는 전체적으로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청소년이 학업중단 청소년에 비해 성적과 관련하여 가정과 학교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학업중단 청소년은 학교와 가정으로 인한 스트레스에서 해방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환경적으로 일반청소년은 만나절 이상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고, 학교에서의 과도한 수업과 시험으로 불안을 느끼면서 공부 및 시험, 성적과 관련하여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학교에서 뿐만 아니라 집에 가서도 부모를 통해 높게 인식할 수밖에 없으며, 사춘기 특성으로 인한 정서적 불안과 심리적인 부적응들이 부모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일반청소년과 학업중단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전체적으로 일반청소년이 학업중단 청소년보다 대처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처방식별로 살펴보면, 일반청소년이 학업중단 청소년보다 과업중심 대처방식과 정서중심 대처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행청소년이 일반청소년보다 과업중심 대처방식(박민호, 2009)과 정서중심 대처방식(김형선, 2001)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연구와는 다르지만, 일반청소년이 비행청소년보다 과업중심과 정서중심 대처방식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강은정(2013)의 연구와 전체적으로 일치한다. 또한, 일반청소년은 비행청소년에 비해 과업중심 대처유형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김형선(2001)의 연구와 정서중심 대처방법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이정남(2003)의 연구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또한 일반청소년이 비행청소년보다 논리적 분석과 긍정적 검토의 접근적 대처방안을 사용한다는 강영자(1996)의 연구와도 맥락적으로 일치하는 부분이며, 이미숙(2001)의 연구에서 비행청소년들은 일반청소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양한 대처방식을 활용하지 못한다고 밝힌 것과도 어느 정도 일치한다.

이는 기질에 따른 대처방식의 접근이 다름을 반영하는 내용으로써, 일반청소년과 학업중단 청소년의 전체적 성향이 다름으로 인해 대처방식의 선택과 그 사용빈도가 다르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질적 접근이란 대처 행동이 오랜 상황과 시간에 걸쳐 인격에 의해 결정되고 그 개인에 의해 채택되는 정형화되고 조절된 반응을 말하며, 스트레스 대처방식의 효율성은 스트레스의 성질과 그 사람의 개인적, 또는 사회적 기질에 좌우된다고 알려져 왔다(박용천, 김광일, Samuel Noh, 2000).

셋째, 일반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일반청소년은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정서중심 대처방식을 선택하며, 과업중심 대처방법의 사용빈도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는 부모관련, 성적 및 학교 관련, 외모관련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정서중심 대처방식을 선택하며, 외모관련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과업중심 대처방법 사용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이 장래진학, 학교생활, 신체적 건강 및 용모에 관련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문제중심적 대처를 많이 사용한다는 윤종선(2007)의 연구와 계열에 상관없이 가치관에 관련된 스트레스를 많이 경험할수록 문제중심적 대처방

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오선향(2002)의 연구와 맥락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다. 하지만 학교생활, 가치관, 신체적 건강 및 용모와 관련된 스트레스가 정서완화적 대처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윤종선, 2007), 비행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 두 집단 모두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정서중심 대처방법이나 회피중심 대처방법을 선호한다고 밝힌 연구와(박민호, 2009)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또한, 계열에 상관없이 가치관, 가정경제, 취미 및 오락, 신체적 건강 및 용모에 대한 청소년의 스트레스 경험과 정서완화적 대처방식이 정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오선향(2002)의 연구와 일반청소년의 경우 전체 스트레스는 정서중심 대처방법에 영향을 미쳤고, 하위요인별로는 부모 관련, 성적 및 학교 관련 스트레스가 영향을 미쳤다는 강은정(2013)의 연구와 일치한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일반청소년이 스트레스를 경험할 때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해결보다는 정서중심적으로 문제에 몰두함으로써 소극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는 태도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개입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넷째, 학업중단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스트레스 수준이 높을수록 정서중심 대처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봤을 때, 성적 및 학교 스트레스를 받을수록 정서중심 대처방법을 사용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비행청소년의 경우 전체 스트레스는 과업중심, 정서중심, 회피중심 대처방법에 모두 영향을 미쳤고, 하위요인 별로는 경제적 관련 스트레스는 과업중심 대처방법에 부적적으로 영향을 미쳤고, 성적 및 학교 관련 스트레스는 정서중심 대처방법에 영향을 미쳤다는 강은정(2013)의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일반청소년에 비해 학업중단 청소년이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다양하게 사용하지는 못하지만 유의미한 정도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사용하고 있다는 건 청소년들 나름대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은 하고 있으나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그 방법의 다양성을 학습한 경험이 없기 때문이 아닌가 사료된다. 따라서 학업중단청소년에게는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다양한 대처방식을 교육하고 지도함으로써 그들의 문제해결능력을 개선시켜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일반청소년과 학업중단 청소년 모두 스트레스가 정서중심 대처방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청소년이 스트레스에 대처할 때, 감정의 반응이나 자기편견, 사건에 대한 공상으로써 문제에만 몰두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선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청소년들이 문제에 대한 직접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이나 시도 없이 일찍 포기하거나 좌절함으로써 건강한 스트레스 대처방식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태도의 변화를 위해서는 스트레스를 직접 대처하지 못하게 하는 정서적인 내면의 탐색과 낮은 자존감의 향상 및 주변의 지지나 격려가 적극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위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추후 연구를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대상은 제주도내 학업중단 청소년과 제주지역 소재 고등학교를 다니는 일반청소년들로 제주지역으로 한정해서 연구하였다. 이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한 추후 연구에서는 다른 지역 청소년 대상으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학업중단 청소년은 17~20세, 일반청소년은 고1~고2 학생들이었다. 전체적으로 17세 이후 청소년들 대상으로만 연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17세 이하 및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더 필요하며, 이로써 연구의 결과를 좀 더 명확히 하여 결과의 일반화를 시도할 필요가 있다.

셋째, 본 연구는 일반청소년과 학업중단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식을 설문지를 통한 조사연구로써 수행하였다. 따라서 개별특성을 고려한 연구는 배제되었다. 개별적인 면담을 실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하는 연구와 양적연구를 병합한다면 보다 더 완벽한 연구가 될 것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개별 면담을 통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강석영, 양은주, 이자영(2009). 잠재적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개입프로그램 개발.  
서울: 한국청소년 상담원.
- 강승호, 정은주(1999). 고등학생들의 스트레스와 학업성적 및 정신건강 간의 관계연구.  
교육심리연구, 13(4), 405-424.
- 강은정(2013)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스트레스 원인과 대처방법 비교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순희(1994). 고등학교 학생들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식 및 적응의 관계.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고영실(2006). 부모의 양육태도 및 사회적지지가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가정 관련 스트레스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교육통계서비스(2015). <http://kess.kedi.re.kr/index>.에서 2015년 2월 인출
- 권이중(2010). 학업중단 아동과 청소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한국아동청소년가족 포럼자료집.
- 권이중(2010). 학업중단 아동과 청소년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한국아동청소년가족 포럼 제4회 정책토론회 자료집, pp. 11-40. 6월 10일. 부산: 한국청소년상담원 강당.
- 권혁호(2003). 청소년의 스트레스 경험과 대처에 관한 종단적 연구: 사회적 지원 과 자기효능감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권현진(1997)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직업지도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금명자(2008). 우리나라 학업중단청소년에 대한 이해.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4(1), 299-317.
- 김근환(2004).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요인과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사회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길자(2004). 중학생의 스트레스 요인과 대처양식 및 학교적응도와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동민, 금명자, 권혜수, 이소영, 이희우, 이광호(2003). 학업중단 청소년 지원협의 체

- 구성 및 운영연구. **청소년상담연구**, 105. 서울: 한국청소년 상담원.
- 김미경, 김유나, 김신희(2011). 서울시 아동청소년 안전 및 건강실태 조사. 서울: 서울지여성가족재단.
- 김미례, 홍경자, 양승남(2002). 고등학교 학생들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식. **청소년상담연구**, 10(1), 107-125.
- 김범구(2012). 청소년 학업중단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 **청소년학연구**, 19(4), 315-337.
- 김상미, 남진열(2011). 청소년의 또래애착과 학교생활적응이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미래청소년학회**, 8(4), 225-242.
- 김성이, 김만지(2002). 청소년 스트레스 대처기술의 연령별 성별 차이 연구. **한국학교사회사업학회지**, (5), 1-18.
- 김성현(2012). 진로 의사결정훈련 프로그램이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상담평가연구**, 5(2), 47-59.
- 김승원(2000). **청소년의 스트레스 대처양식과 관련 변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여진(2006).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와의 의사소통과 스트레스 대처방식 및 학교 적응간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의철, 박영신(1997). 스트레스 경험, 대처와 적응 결과: 토착심리학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2(1), 96-126.
- 김정엽(2006). 간호학생의 자아분화 정도와 스트레스 수준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대한 연구. **한국간호교육학**, 12(2), 238-247.
- 김준호, 이동원(1996). 청소년의 긴장과 비행. 서울: 형사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96-03.
- 김진영(2009). **고등학교 학생의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찬호(2002). 학업중단 청소년 종합대책 지정토론. **학업중단 청소년 종합대책 마련을 위한 공청회 자료집**, 107-110. 5월 3일. 교원징계재심위원회 대강당.
- 김현지(2015). **학업중단 청소년의 사회적지지, 자아탄력성과 스트레스 대처방식간의 관계**.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형선(2002). **일반청소년과 비행청소년의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유형 비교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혜영(2002). 학교중도탈락의 사회적 맥락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9(3), 213-242.
- 김홍수(2000).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가정 환경 인식 비교. 순천향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상우(2004). 학업중단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전략. **한독교육학연구**, (2), 45-64.
- 박경희(2003). 청소년의 스트레스 원인과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 - 인문계 고등 학생을 중심으로.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민호(2009). 비행청소년과 일반청소년의 스트레스 수준과 대처방법에 관한 비교연구. 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소영, 문혁준(2005).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 관련 변인 탐색. **대한가정학회지**, 43(9), 71-84.
- 박영신, 김의철, 김영희(2007). 한국청소년의 일탈행동 형성과정에 대한 중단분석: 심리적, 관계적, 그리고 사회적 접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문제**, 13(1), 1-47.
- 박용천, 김광일, Noh, S.(2000). 한국 고등학생에 대한 스트레스상황 대처감사의 타당도 평가. **대한신경정신의학회/신경정신의학**. p55-64.
- 박정임(2016). 외모를 강조하는 대중매체에의 과다노출이 여자청소년의 신체 이미지와 자기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경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진아(2001). 학령기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행동문제가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현진(1997). 자아탄력성에 따른 지각된 스트레스, 대처 및 우울.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혜숙(2008). 해결중심 집단미술치료가 학교생활부적응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과 스트레스에 미치는 효과.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영태(2003). 중고생의 중도탈락 인과모형 검증과 판별척도 개발. 대구카톨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배영태(2003). 학교 중도탈락의 선행요인과 판별. **청소년상담연구**, 11(2), 23-35.
- 변우영(2005). 중학생의 학교생활 만족도 및 스트레스 요인에 관한 연구. 세명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신영(1999). 대학생의 자존감, 대처방식과 도움추구태도와의 관계 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정아, 권해수, 정찬석(2006). 학교밖 청소년의 실태와 정책적 대응방안. 한국청소년개발원.
- 성윤숙(2005). 학교중도탈락 청소년의 중퇴과정 적응에 관한 탐색. 한국청소년연구, 16(2), 295-343.
- 손승영(2003). **학업중퇴자: 현실과 대안**. 서울: 학지사.
- 양국선, 장성숙, 2001. 학교적응유연성과 관련된 보호요인 특성 연구: 야간실업 고등학교 근로청소년대상.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3(3), 127-148.
- 오선영(2012). **청소년의 생활 스트레스와 우울감의 관계에 있어서 정서적 지지의 조절효과**. 순천향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선향(2002).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요인과 스트레스 대처방식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세진, 김용희, 김청송, 김형일, 신맹식, 양계민, 양돈규, 이요행, 이장한, 이재일, 오현성(2008). **고등학교 학생의 학교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행동 및 정신 신체건강과의 관계**.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오혜영, 지승희, 박현진(2011). 학업중단에서 학업복귀자의 경험에 관한 연구. 청소년 상담연구, 19(2), 125-154.
- 유성경(1998). 중도탈락학생 사회적응 상담정책 개발연구: 잠재적 중도탈락학생에 대한 개입체제 개발 연구2. **청소년대화의 광장**.
- 유성경, 이소래(1998). 잠재적 중도탈락 학생에 대한 개입체제 개발연구. 서울: **청소년대화의 광장**.
- 윤미경(2002). **잠재적 중도탈락 학생을 위한 적응 유연성 집단상담프로그램의 개발**.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여각, 박창남, 전병유, 진미석(2002). 학업중단청소년 및 대안교육실태조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윤종선(2007). **청소년의 스트레스 요인과 대처방식 및 학교적응과의 관계 연구**. 강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철경, 류방란(2010). 학업중단 현황 심층분석 및 맞춤형 대책연구. 서울: **교육과 학기술부**.
- 윤혜정, 유안진(1993). 청소년의 일상적 스트레스와 사회적관계망지지 지각. **생활과학연구**, 18, 25-36.
- 이경상, 조혜영(2005). 학업중단 청소년의 진로설정 및 준비실태에 관한 연구.

- 진로교육연구, 18(2), 19-38.
- 이경희(1996). **청소년의 스트레스에 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도영(1990). **고등학교 학생들의 스트레스 수준과 그 대처반응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미선(2003). **고등학생의 자기효능감과 학교적응 및 스트레스 대처방식간의 관계**.  
원광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병환(2002). 「**학업중단 청소년의 사회적응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 이병환(2007). 대안교육을 통한 청소년 학업중단 예방 방안. **중등교육연구**, 55(1), 69-89.
- 이복희, 김종표, 김지환(2008). **청소년 교육론**. 서울: 학지사.
- 이숙영, 남상인(1997). **중도탈락 학생의 사회적응 상담정책 개발연구**. 서울: **청소년대화의 광장**.
- 이숙영, 남상인, 이재규(1997). **중도탈락학생의 사회적응 상담정책개발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40. 서울: **청소년대화의 광장**.
- 이예승(2004). **청소년의 학교 스트레스, 자아탄력성 및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여자 고등학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유미(1994). **청소년 스트레스와 인지적 평가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은희, 김미래(2002). REBT를 적용한 스트레스관리 훈련이 부적응 고등학생의 스트레스 지각에 미치는 효과. **한국심리학회지**, 7(2), 317-334.
- 이정미, 이지연, 장진이(2012). 초등학생의 일상적인 스트레스와 공격성의 관계에서 정서조절 능력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19(5), 93-113.
- 이치열(2009). 학업중단 청소년 문제에 대한 성찰과 전망. 네이버 블로그. <http://blog.naver.com/talky1573/20090244623>
- 임은미, 강지현, 권혜수, 김광수, 김정희, 김희수, 박승민, 여태철, 윤경희, 이영순, 임진영, 최지영, 최지은, 황매향(2013). **인간발달과 상담**. 서울: 학지사.
- 장석민(2002). 학교를 떠난 청소년의 진로문제와 지도대책. **청소년상담문제연구보고서 46**. 47-48. 서울: 한국청소년 상담원.
- 전경숙(2013). 경기도 학교밖 청소년 지원방안 연구. 경기: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 정은옥(2008). **학령기 아동의 일상적 스트레스 및 문제행동 수준에 따른 사회적보처리 과정**.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태연, 현주석(2014). **인간행동과 심리학**. 서울: 학지사.
- 조성연 외, (2008). 「**청소년복지론**」. 창지사.
- 조성연, 이미리, 박은미(2009). 학업중단청소년. **한국아동학회**, 30(6), 391-403.
- 조영승, 구분용, 신현숙, 유순덕(2001). 경기도 지역 중퇴생 선도·보호방안 프로그램 개발연구. **경기도 교육청**.
- 조학래(1997).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4, 186-210.
- 장숙희(2005). **청소년의 스트레스 요인과 방어기제와의 관계**.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상근, 양수경, 남기곤(2010). **학업중단위기 학생의 실태와 지원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 최해경(2012). **청소년의 학교적응에 영향 미치는 요인**. 충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표갑수(1993). 중·고등학생의 중퇴요인과 대책. **청소년학연구**, 1(1), 127-147.
- 한지원(2002). **학교중퇴청소년 진로지도에 관한 연구: 자기 길 찾기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한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향정(2007). **남녀고등학생의 자아존중감 및 스트레스 대처행동과 우울과의 관계**. 경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허진희(2007). **청소년의 스트레스, 자아개념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 - 외모·경제 스트레스, 자아개념의 세 차원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분자(2006). **중학생의 스트레스와 통제소재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부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애숙(2008). **중학생의 스트레스 및 자기효능감과 학교적응과의 관계**. 부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황미정(2004). **중학생의 스트레스, 스트레스 대처유형에 따른 학교적응에 관한 연구**.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loom, D.(2010). Programs and policies to assist high school dropouts in the transition to adulthood. *The Future of Children*, 20(1); 89-108.
- Lazarus, R. S., & Folkman, S. (1984). Stress, appraisal and coping. *New York: Springer*.
- Lazarus, R. S. (1991) Emotion and adaptation.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Moos, R, H. (1985). Conceptualizing and measuring coping resources and process.  
IN Gldberger, L., & Breznitz, S. (eds.) Handbook of stress  
Theoretical and clinical Aspects. *New York: Free Press. pp 212~230.*
- Moos와 Billings(1984)-사회적지지, 자아탄력성, 대처방식. 김현지(한남대)
- Pearlin과 Schooler(1978)-사회적지지, 자아탄력성, 대처방식. 김현지(한남대)
- White(1974)-사회적지지, 자아탄력성, 대처방식. 김현지(한남대)



<Abstract>

Comparison of Stress and Stress Coping method  
between In-school and Dropout Adolescents

Park, Sung-ho

Counselling Psycholog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J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Park, Jung-hwan

Every year the number of dropout adolescents has amounted to from fifty thousand to sixty thousand in South Korea. According to the education statistical year book of 2016, the number recorded 22,554 dropouts from high school in 2015 only. The situation of dropping-out from school may lead to feeling of isolation and falling-behind within the society they belong to, from the viewpoint of the individuals concerned, and, further from the overall social context, the increase of their possibility of being more often exposed to delinquencies or crime-causing circumstances, which all could be related to serious social problems. This study starts from this awareness that there may be different elements of stress derived from different circumstances and therefore different types of coping method between general and most students who pursue their studies at school and dropout adolesc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stress-causing elements and stress-coping method between in-school adolescents and dropouts, and, furthermore, to identify the

differences and correlations more closely. In order to fulfill this purpose, the following research problems are proposed.

Research problem 1: Are there any differences in stress-causing elements between in-school and dropout adolescents?

Research problem 2: Are there any differences in coping method of the stress they suffer from between in-school and dropout adolescents?

Research problem 3: What kinds of elements do exist affecting the stress of in-school adolescents and their coping method of the stress?

Research problem 4: What kinds of elements do exist affecting the stress of dropout adolescents and their coping method of the stress?

In an effort to find the solutions of these problems, the subject group is divided into two divisions: 284 high school students currently enrolled into high schools located in Jeju province at the grade of 1st or 2nd, and 95 dropouts who currently belong to Youth Supporting Center for Dropouts, Youth Night School, Private Educational Institute, Shelter for Youth, and Youth Detention Center. The research tool of the questionnaire for the purpose of measuring stress scale was based on Stress Scales proposed by Kim, Joon-ho and Lee, Dong-won(1996), and revised by Park, Min-ho(2009) with partial adjustment on vocabulary and some questions. This questionnaire has five subclasses of 'Parents', 'School and Grade', 'Friends', 'Looks' and 'Financial'. It is composed of total 26 questions of five points for each, with the Likert Scale method applied. The tool of questionnaire for measuring the stress coping method was based on the Coping Inventory for Stressful Situations (CISS) developed by Endler and Rarker and translated into Korean by Park, Yong-chun, Kim, Kwang-il, Noh(2000). The Korean version was once again revised by Park, Min-ho(2009) with 30 questions of five points for each. This final questionnaire has three subclasses of 'Task-orientated', 'Emotion-orientated' and 'Avoidance-orientated'.

In order to complete the purpose of this study, various analysis methods including t-test,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are applied using SPSS for windows 18.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e research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on the amount of stress, in the categories of 'Parents', 'School and Grade', in-school adolescents were under more stress than the dropouts.

Second,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on the coping method of stress, in-school adolescents tends to use Task-oriented and Emotion-oriented method more than the dropouts while the dropouts overall using Emotion-oriented method.

Third,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on the influence of stress on the coping method, the total stress has an effect on Emotion-oriented and Task-oriented method. By sub-category, the elements of 'Parents', 'school and Grade', 'Looks' had an effect on Emotion-oriented method, while those of 'Looks' having a negative effect on Task-oriented method.

Fourth, in case of dropouts, the total stress had an effect on Emotion-oriented method. By sub-category, the elements of 'School and grade' have an effect on Emotion-oriented method while having an effect on Avoidance method.

In conclusion, in-school and dropout adolescents are exposed to various types of stress with different coping method from each other. In reality, stress cannot be avoidable due to its environmental properties. However, in case that the cause of stress and coping method thereof are well understood and identified, right direction and guide for them all can be proposed leading them to desirable components of this society. Therefore, I hope this study will be practically used as basis of materials for the counselling and education program targeting adolescents who suffer from stressful situations.

부 록

스트레스 대응 질문지

안녕하세요?

귀중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질문지는 청소년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직면하는 다양한 스트레스 수준과 그 스트레스를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기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만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여러분의 솔직한 답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계법 제33조에 의하여 개인의 정보는 철저히 보호되며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천천히 자세하게 읽어 보세요. 본 질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답변은 본 연구 이외에는 일체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리며 수집된 자료는 연구가 끝나는 뒤 2017년 8월 31일 폐기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소중한 시간 허락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본인은 이 연구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었으며, 이 연구에 참여할 것을 동의합니다."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지도 교수 : 박정환(제주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연구자 : 박성호(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전공 석사과정)

이메일: [tjdgh0726@naver.com](mailto:tjdgh0726@naver.com)

※ 아래 해당되시는 곳에 √ 표 해주십시오.

- 1.성별                      ① 남자                      ② 여자
- 2.학력 수준              ① 재학    고 (      학년)      ② 학업중단    (      세)
- 3.학업 성적              ① 상                      ② 중                      ③ 하
- 4.가정 경제 상태 (월소득 합계)
- ① 100만원 미만
  - ② 100만원 이상 ~ 200만원 미만
  - ③ 200만원 이상 ~ 300만원 미만
  - ④ 300만원 이상 ~ 400만원 미만
  - ⑤ 4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
  - ⑥ 500만원 이상

## 1. 스트레스 수준

※ 다음 문항은 평소 청소년 여러분들이 겪는 스트레스에 관한 질문입니다.  
읽고 여러분의 생각과 일치 하는 곳에 √ 표 해주십시오.

번호	질 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많이 그렇다	아주 많이 그렇다
1	성적 때문에 부모님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2	부모님과 의견충돌이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3	부모님의 지나친 기대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4	부모님의 지나친 간섭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5	부모님끼리 싸워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6	부모님으로부터 대화가 안 통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7	부모로부터 형제간에 비교를 당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8	선생님에게 인정을 받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9	학교에 있으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10	공부에 흥미가 없어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11	학교성적이 좋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12	공부한 만큼 성적이 나오지 않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13	숙제나 시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14	친구에게 놀림이나 무시를 당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15	친구들에게 맞거나 물건을 빼앗겨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16	친구들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17	친구들에게 따돌림을 당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18	친구에 대한 열등감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19	친구들에게 어울리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20	몸무게가 많거나 적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21	키가 너무 크거나 작아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22	얼굴 생김새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23	멋있는 옷을 입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24	용돈이 부족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25	갖고 싶은 물건을 갖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26	우리 집이 가난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①	②	③	④	⑤

## 2. 스트레스 대처 방법

※ 다음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에 관한 질문입니다. 아래의 문항을 읽고 여러 가지 해소 방법에 대해 여러분의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 표 해주십시오.

번호	질 문 내 용	전혀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많이 그렇다	아주 많이 그렇다
1	문제에 집중하고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알아본다.	①	②	③	④	⑤
2	무엇을 할 것인가 우선순위를 생각해 본다.	①	②	③	④	⑤
3	내가 과거에는 비슷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였던가를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4	일어난 사건을 생각해 보고 나의 실수로부터 교훈을 얻는다.	①	②	③	④	⑤
5	반응하기 전에 나의 문제를 분석한다.	①	②	③	④	⑤
6	행동의 우선순위를 교정한다.	①	②	③	④	⑤
7	과제나 업무를 하기 위하여 추가로 노력을 더 한다.	①	②	③	④	⑤
8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한다.	①	②	③	④	⑤
9	처한 상황이나 문제를 나의 능력을 확인하는 기회로 이용한다.	①	②	③	④	⑤
10	다음에 같은 상황에 처했을 경우를 대비해 대책을 세운다.	①	②	③	④	⑤
11	일을 미룬 나 자신을 비난한다.	①	②	③	④	⑤
12	고통과 통증에 사로잡히기 시작한다.	①	②	③	④	⑤
13	이런 상황에 빠진 것에 대해 나 자신을 비난한다.	①	②	③	④	⑤
14	잘 대처하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불안해한다.	①	②	③	④	⑤

15	상당히 긴장한다.	①	②	③	④	⑤
16	지나치게 감정적 반응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나무란다.	①	②	③	④	⑤
17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나 자신을 나무란다.	①	②	③	④	⑤
18	매우 언짢아한다.	①	②	③	④	⑤
19	화를 낸다.	①	②	③	④	⑤
20	다른 사람에게 화풀이를 한다.	①	②	③	④	⑤
21	다른 사람과 같이 있으려 한다.	①	②	③	④	⑤
22	시내, 상점이나 백화점을 돌아다니며 구경한다.	①	②	③	④	⑤
23	친구와 만나 재미있게 논다.	①	②	③	④	⑤
24	좋아하는 간식이나 음식을 먹으러 간다.	①	②	③	④	⑤
25	친구를 방문한다.	①	②	③	④	⑤
26	특별한 사람과 시간을 같이 보낸다.	①	②	③	④	⑤
27	산책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28	친구에게 전화를 건다.	①	②	③	④	⑤
29	TV를 본다.	①	②	③	④	⑤
30	PC 방이나 집에서 인터넷 또는 채팅을 한다.	①	②	③	④	⑤

●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